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혁신정책 2.0
현장을 가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혁신정책 2.0
현장을 가다

발행 희망제작소
발행일 2013년 5월 24일
발행인 박재승
편집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4층
전화 02-3210-0909
팩스 02-3210-0126
메일 wolstar@makehope.org

차 례

- 04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 프로그램 안내
- 06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 참석자 명단
- 07 아는 만큼 보인다_ 서울특별시
- 10 현장투어 참고자료

목민관클럽 워크숍: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혁신정책 2.0 현장을 가다

- 45 발표 1. 서울시 열린 행정 2.0을 소개합니다.
박 원 순 서울특별시장
- 47 발표 2. 공공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 만들기
최 용 선 광주 광산구 정책팀장
- 69 목민관클럽 임원 및 조직 구성
- 70 목민관클럽 회원 주소록
- 72 목민관클럽 창립취지문 및 규약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혁신정책 2.0 현장을 가다

◆ 일시: 2013.5.24(금)~5.25(토) ◆ 장소: 서울시 일원

1. 기획취지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도시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곳임
- 소통과 신뢰를 기조로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서울은 현재,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시정의 주요방향을 시민참여를 통해 결정하고 추진함
- 특히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의 설정 및 이행, 주택 공급을 넘어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 에너지 다(多)소비 지역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전환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등은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된 혁신적 시도들로서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음
-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시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동안 행정중심의 정책 실현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으로서 행정추진체계의 변곡점이 될 것임
- 이번 연수는 서울시 열린 행정 2.0 주요 정책과 현장들을 둘러봄으로서, 혁신적 정책들을 배우고 확산하고자 함
- 아울러, 미국 오바마 정부의 주요 재선전략으로 알려진 빅데이터, GIS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모범 사례를 배워보고자 함

1) 서울시의 혁신적 정책 소개 및 현장 방문

-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충전의 공간 : 시민청 및 도서관
-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행정혁신 : 은평구 사회혁신클러스터
- 마을공동체 활동의 이유있는 상상 :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 범죄야 물렸거라 : 마포구 염리동 범죄예방마을

2) 빅데이터, GIS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수립사례 (광주 광산구)

2. 세부프로그램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시간	프로그램	세부 내용
~13:40	집결	▶ 집결 및 환담 (서울특별시청 3층 소회의실)
13:50~14:00	안내	- 현장방문 일정 안내 (3층 대회의실)
14:00~15:00	견학	▶ 통통 투어 '시민 참여 공간 시민청과 서울 도서관' - 현장안내 및 단체 사진촬영
15:00~15:30	이동	- 버스로 이동 (10km-30분, 서울시청 → 마포구 염리동)
15:30~16:10	현장견학	▶ 공간의 재구성, 마포구 범죄예방 마을
16:10~16:40	이동	- 버스로 이동 (10km-30분, 염리동 → 동작구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16:40~17:30	현장견학	▶ 원전하나 줄이기 현장, 성대골 에너지자립 마을
17:30~18:00	이동	- 버스로 이동 (5km-20분, 성대골 → 영등포 유스호스텔)
18:00~19:15	저녁식사	- 영등포 유스호스텔 대강당(오요리 케이터링)
19:15~19:30	정리	- 식사후 장내 정리
19:30~21:00	정책소개	▶ 서울시 열린 행정 2.0을 소개합니다. - 발표. 서울시 혁신적 정책 추진 현황 박원순 서울시장 * 장소: 영등포 하이 서울 유스호스텔 지하1층 대강당
21:00~21:10	이동	휴식 및 이동
21:10~21:30	운영위	◇ 목민관클럽 제 15차 운영위원회 (유스호스텔 2층 대회의실) - 향후 사업계획 보고, 의견수렴
21:30~23:00	뒷풀이	▶ 서울시장과의 대화 (유스호스텔 2층 대회의실(트리스트)) * 뒷풀이 겸 자유롭게 대화의 시간 운영
21:40~	마무리	- 첫날 일정 마무리 및 취침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07:30~08:00	아침 식사	유스호스텔 식당
08:00~08:30	이동	- 버스로 이동 (9km-30분, 유스호스텔 → 은평 혁신클러스터)
08:30~09:40	사례발표	▶ 빅데이터, GIS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수립 방향 - 광주 광산구 사례발표 (최용선 팀장)
09:40~11:00	현장견학	▶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전달체계의 혁신, 은평 혁신클러스터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생이모작센터
~11:00	마무리	

※ 본 프로그램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 참석자 명단 (2013. 5.23 기준)

지역	지자체 명	단체장	동행수	동행자 명단
서울	서울시	박원순		
충남	서천군	나소열	2	이천희, 임영순
경기	오산시	곽상욱	4	노경선, 김기덕, 정대진, 서정욱
전북	정읍시	김생기		
서울	성북구	김영배	1	김선수
서울	종로구	김영종	2	이육근, 김영재
서울	은평구	김우영		
서울	강서구	노현송	1	안경희
서울	서대문구	문석진	1	정옥진, 이태묵, 조영아
광주	광산구	민형배	1	김대인
인천	남구	박우섭	3	박한석, 김동주, 박용문
전북	진안군	송영선	3	최미연, 배상현, 강기오
서울	동대문구	유덕열	1	김종수
울산	북구	윤종오	5	이원섭, 안성범, 염정배, 정영희, 송진한
서울	도봉구	이동진	2	강재균, 임창길
서울	강동구	이해식	1	김주영
전북	완주군	임정엽	2	유왕기, 하태국
충북	영동군	정구복	2	김용수, 김덕환
경남	남해군	정현태	2	안일권, 손성준
인천	동구	조택상	1	권정달
서울	금천구	차성수	3	유민석, 이문희, 김재선
인천	부평구	홍미영	2	박흥석, 김응서
서울	관악구		2	정창교, 이원호
경기	수원시		6	윤세홍, 박오현, 이용영, 장영수, 이동준, 염동영
울산	동구		1	김기호, 조상래
전북	익산시		2	김태준, 유승수
	합계	22명	50명	

아는 만큼 보인다 - 서울특별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 35대 서울시정 슬로건은 지난 2011년 11월 시민공모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해 오던 슬로건과 달리,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서울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는 슬로건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의 비전에 대한 고민을 시민과 나눔으로써 서울시정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추진되었으며, 적극적인 시민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늘렸다는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모는 총 997편이 접수 되었으며 그 결과 네티즌 인기상을 포함해 총 6편의 슬로건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위 작품은 박애자(71세) 씨가 응모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 3차에 걸친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되었습니다.

슬로건에 담긴 의미

- 35대 시정 모토인 ‘희망 서울’의 구체적인 실체로,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과 함께 그 결실을 누린다는 ‘시민 참여’와 ‘협치’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뜻과 의견을 물어 시민과 함께 시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의미

대한민국 경제 산업 특별시 서울

서울은 한국의 수도인 동시에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한국 산업의 집적지로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기점으로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으로서 우리 경제를 눈부시게 발전시키며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금융과 물류의 높은 효율성과 첨단 디지털 산업 및 지식 산업의 강한 경쟁력을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면적은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한국 GDP의 21%가 서울에서 창출되며, 금융의 50%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들의 43%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집중분석 구 분 국내총생산

구 분	국내총생산	사업체 수	은행예금	내 국 세	의료기관	자동차수	대 학 교
	(10억원)	(개소)	(10억원)	(10억원)	(개소)	(천대)	(개소)
전 국	581,516	3,131,963	512,419	82,226	44,029	13,949	180
서 울	127,175	735,258	259,355	35,436	12,396	2,691	42
집중도(%)	21.87	23.48	50.61	43.1	28.15	19.29	23.33

세계적 소비시장과 물류의 거점인 서울은 공항과 고속철도, 고속도로 및 주변항만시설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면 3시간 반 안에 동북아의 18억 소비자와 전세계 GDP의 22%를 점유하는 동북아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향후 연결될 대륙 철도를 통해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육로로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근접한 인천 국제공항은 50여개 항공사가 130개 지역으로 운항 중입니다.

이렇듯 서울은 고속철도와 항만시설이 갖춰진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국제적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은 서울에 총 11개소가 있으며 특히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COEX는 12개 전문 전시실과 61개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회의실 규모는 아시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서울에는 한국 전체 대학의 27%가 소재 해 있어 우수한 근로자 확보가 쉽습니다. 또한 OECD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인재가 배출되는 곳

서울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로서 교육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민족문화 사의 중심이 되었던 조선시대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은 성균관으로 서울에만 있는 유일한 중앙 국립대학 이었습니다.

성균관은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국가의 지도적 인재를 배출하였던 한국 교육문화의 총본산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 정부에서도 근대적 형태의 관학으로 1886년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였고 그 외에도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등 많은 학교 가 설립되었는데 이들 학교는 모두 근대적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광복 후 혼란기 속에서도 서울의 교육은 터전을 쌓아 올렸고 양적 팽창기를 거쳐 더 많

은 학교와 교원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교육의 내실을 마련하는 질적 발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교육기관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대학은 서울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587개교, 중학교 382개교, 고등학교 317개교, 전문대학 12개교, 교육대학교 1개교, 대학교 42개교, 대학원 354개교 입니다.

반만년 전통의 우리 민족의 중심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한반도의 서쪽 중심부에 위치하며, 민족의 젖줄인 한강이 흐르고, 백두 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한북정맥의 영향을 받아 산세가 웅장하고 수려하여 세계 여러나라 도시 가운데서도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선사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으로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온 곳입니다.

예로부터 서울은 지리적 위치상 한반도 남북 문화권의 경계지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수도로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백제 건국 초기로, 찬란한 백제문화는 한반도의 문화를 일구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주도권 쟁탈전이 가장 치열했던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를 통해서도 한반도에서 서울의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거친 후 1394년 조선의 건국과 함께 다시금 한반도의 수도로 자리 잡으며 역사의 중심으로 재등장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동안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일제시대에는 ‘경성부’로 불리던 서울은 1945년 8월15일 광복과 함께 서울로 개칭되었으며 1946년에는 도와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수도로 결정되었고 1949년에 우리가 아는 지금의 서울특별시가 되었습니다.

1950년 625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온 서울시는 1951년 2월 서울특별시 부산행정청의 이름으로 피난 온 서울시민의 구호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953년 휴전의 성립과 함께 정부의 환도와 서울시민의 복귀로 서울시정은 재개되었고 전후 복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수도로서의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상 내무부장관의 감독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963년 1월1일자로 한강 이남의 경기도 일대를 편입, 서울의 행정구역을 확대하며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급증하는 각종 도시행정수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강 이남지역의 개발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며 발전을 계속해 갔습니다.

1994년은 조선 왕조가 한양을 도읍으로 삼은 지 600년이 되는 해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해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선포하고 서울정도 1000년을 기약하는 타임캡슐을 묻는 등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근대 문명의 시발점 서울

서울은 19세기 말의 개항 이래로 서구의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여러 분야에서 근대화를 향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철도와 전차가 개통되고 전화, 서양식 학교 등의 근대적 생활 시설들도 들어섰습니다. 1885년에는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혜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혜원의 설립자 알렌은 미국 선교사이자 주한 미국 공사관 의료진으로, 갑신정변 첫날 밤 개화당의 공격을 받아 얼굴과 목, 그리고 등에 이르는 치명적 상처를 입었던 민영익을 치료하여 고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광혜원은 개원2주만에 고종으로부터 ‘제중원’이란 이름을 하사 받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혜원은 연습대학교 의과병원의 시초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민에게 친숙한 탑골 공원은 1897년 원각사 자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구식 공원입니다. 1899년 서울에 처음으로 개통된 전차는 개통무렵 가뭄이 심해 수십 일 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차가 구름을 빨아먹어서 날이 가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

서울은 일찍이 백제와 조선의 도읍지로 각각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많은 유물유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 IT산업단지 등 최첨단을 달리는 도심 한복판에 경복궁, 덕수궁, 남대문 등 고즈넉한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전통이 함께 숨쉬는 「자연과 사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 서울시소개 자료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2. 현장투어 참고자료

① 마포구 염리동 범죄예방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Root out Crime by Design)

□ 문제의 근원

-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과거엔 마포나루를 거점으로 하는 소금창고가 많아 인심이 후한 동네로 유명했지만 최근 개발이 지연되면서 원주민 비율이 급격히 줄고 세입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유입으로 주민간의 갈등 요인이 많아졌습니다. 여성거주자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밤이면 상점도 거의 문을 닫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 문제해결의 실마리

- 서울시가 이와 같이 주민들이 범죄나 안전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두곳을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선정, 범죄예방디자인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디자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 디자인’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와 디자인을 접목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람중심의 디자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문제해결의 과정

- 서울시는 범죄심리학자, CPTED분야 전문가, 경찰청관계자, 아동청소년 전문가, 커뮤니티아트 전문가 및 서비스디자이너 등 총 12인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및 학교 각1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곳은 전형적인 달동네로 꼽히는 ‘마포구 염리동’, 다른 한곳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자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사회경제 수준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는 ‘강서구 가양동 공진중학교’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기존 시가지에 CPTED 기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 시범적용

○ 마포구 염리동

- 소금길 지킴이집 조성 : 6가옥
- 소금길 조성 : 운동 코스개발(1.7Km, 40분), 운동기구설치, 골목 아뜰리에 조성
- 소금길 전봇대를 활용한 정확한 위치인식 사인 및 CCTV안내 사인 부착

○ 강서구 가양동 공진중학교

- 학교 내 사각지대를 촬영하여 모니터할 수 있는 ‘드림월’ 조성
- 학생의 내면을 표출 할 수 있는 소규모 무대 ‘드림스테이지’와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 ‘드림그라운드’ 조성
- 학교 도색 : 윤호섭 외 한국대표 디자이너 7인, 54명 자원봉사자 참여
- 독서, 미술, 드라마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12. 7~8)

□ 서울 국제범죄예방디자인 세미나

○ 일시/장소 : '12.10.17(수),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 참석 : 300여명 (국내외 전문가, 외국기관, 경찰청 등)

- 영국 DAC : 로레인 게먼(DAC 디렉터), 아담 썸 (연구원)
- 호주 DOC : 더글러스 톰킨 (범죄 디자이너), 로저 왓슨

※ 영국 DAC와 호주 DOC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공유 및 협력방안 MOU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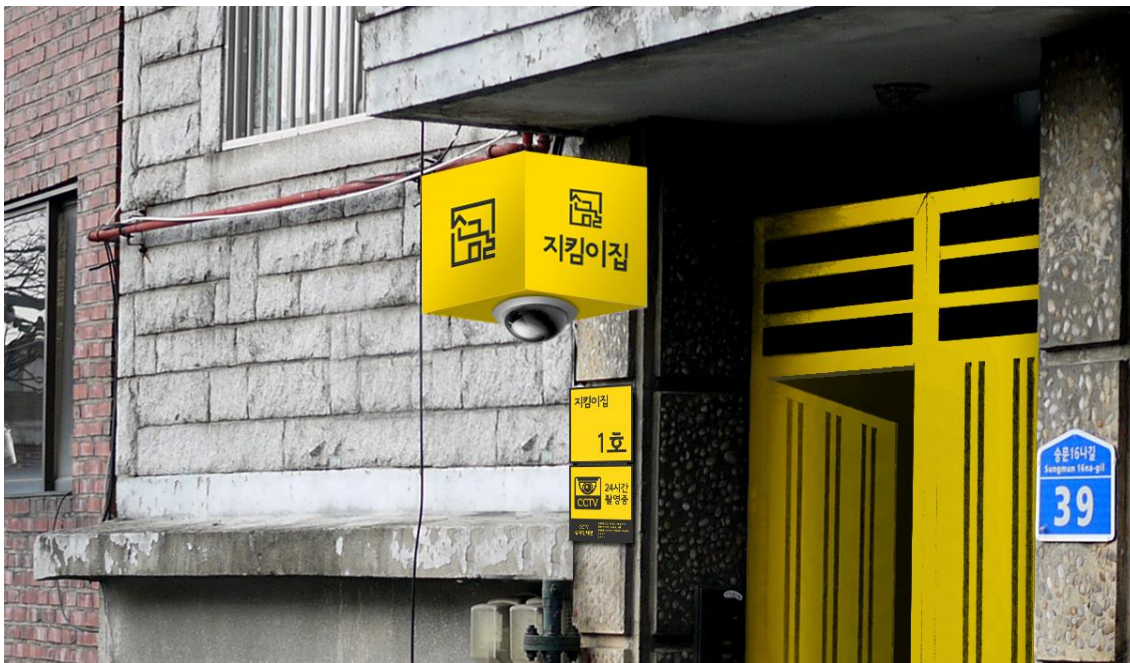


□ 사진 자료

▶ 소금길 전체 지도



▶ 소금길 지킴이집



▶ 소금길 전봇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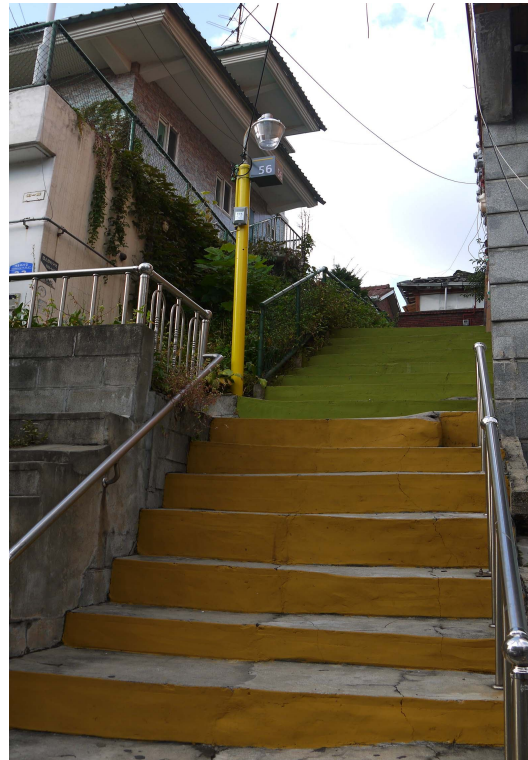
후 <낮>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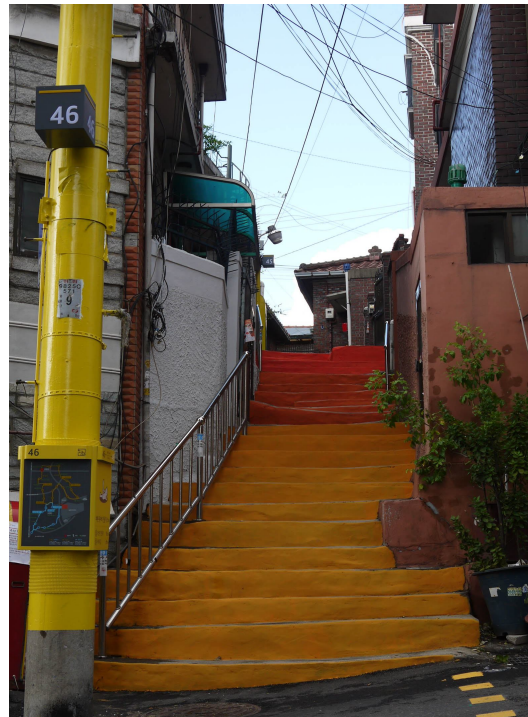
전



후



전



후

▶ 소금길 바닥놀이



전



후

▶ 주민공동체 예술



전



후



전



후



재능기부

- 공진중학교 정보관 내·외부(김현선)



전



후

- 공진중학교 복도 벽화(이성표)



전



후

② 동작구 상도4동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에너지자립마을 소개

□ 에너지자립마을이란?

- 에너지자립마을이란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외부에너지 수역을 최소화하여 마을공동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마을을 의미합니다.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1단계 최대한 아끼는 ‘절약실천활동’→ 2단계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3단계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을범위 최소 50가구 이상 참여 활동가능한 마을 에너지절감 추진
 - 주민 주도 에너지자립활동에 대한 보조금 및 에너지 컨설팅 등 지원
 - 주민·활동가 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추진단계에 설정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 마을별 특성에 맞는 마을이야기와 에너지를 접목한 스토리텔링 개발
 - 마을 주변지역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견학 체험코스 개발 관광상품화 등

□ 서울에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은 어디인가요?

- 서울시는 ‘14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공모를 통해 시범마을 2개소, 일반마을 9개소 등 총 11개소를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 2012년에는 시범마을로 ▲성대골 마을(동작), ▲새재미 마을(금천)을 선정하였으며, 일반마을로는 ▲둔촌한솔솔파크(강동) ▲십자성마을(강동) ▲방학우성2차아파트(도봉) ▲방아골마을(도봉) ▲돈을벌마을(성북)을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유형	마을이름	사업명	마을현황
시범	단독주택	성대골마을	성대골절전소, 에너지 자립을 꿈꾸다.	상도 3,4동 성대골 약 70가구
	단독주택	새재미마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천형 마을만들기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주변 약 70가구
일반	공동주택	둔촌한솔솔파크	주민참여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실천방안	둔촌한솔 솔파크 아파트 132가구
	단독주택	십자성마을	절약생산 실천을 통한 에너지 자립 실현	천호동 십자성 마을 90가구
	공동주택	방학우성2차 아파트	『아름다운 숲속마을』 에너지 자립 실천사업	방학우성2차아파트 입주민 558가구
	단독주택	방아골마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에코마을	방학2동 방아골마을 약 200가구
	단독주택	돈을벌마을	돈을벌마을 만들기	정릉동 약 50가구

- 또한 2013년에는 일반마을로 ▲전농2동 래미안아름숲(동대문), ▲쌍용플래티넘 노블(구로), ▲ 응암동 산골마을(은평), ▲긴고랑길 마을(광진) 등 4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 에너지자립마을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는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마을의 3인 이상 주민조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시는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현장방문 (마을대표 면담 등) 및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에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합니다.
 - 에너지컨설팅 : 마을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및 생산 방안 제시
 - 에너지절약 : 가구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절감실적 관리
 - 에너지효율화 :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실시, LED조명 교체, 카 셰어링 등
 - 신재생에너지 설치 : 시민햇빛발전소 및 그린홈 보급사업 등과 연계 추진

※ 단계 업그레이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 ⇒ 마을공동체 보조금집행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에너지관련 시설비 일부지원
- ▶ 에너지체험관 설치 : 다중이용 장소, 활용도 등 검토지원 (시범마을 등 견학시 활용)
- ▶ 신재생에너지 설치 : 주택 태양광설치시 그린홈 등 연계, 10%추가 지원
미니태양광 설치시 설치비 40%, 태양광발전사업시 일부지원 등
- ▶ 주택에너지효율화 : BRP 우선 선정 및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연계 지원

□ 성대골마을 간단 Q&A

Q. 성대골은 어떤 동네?

- 도시지만 마을 공동체가 있는 동네. 지하철로는 신대방삼거리역이 가깝다. 마을 입구에 성대시장이 있고, 시장길을 따라 쪽 올라가면 왼편에 마을카페 사이시옷,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마을학교가 있다.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 목공소도 있다.

Q. 성대골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상도 3동과 4동에는 약 2만2천세대, 5만5천여명이 살고있다.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은 상도3, 4동과 대방동 일부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성대골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물으면, 본인이 성대골주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곳까지가 성대골이라고 답하곤 한다.

Q. 도서관이나 마을카페, 마을 목공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 동작구에 희망동네(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유호근사무국장은 동작구 15개동에 동마다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09년 늦가을 상도 3,4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희망동네는 네트워크를 움직여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을 탄생시켰다. 도서관을 개관하고 2주 만에 사이시옷 카페가 추진되었다. 사이시옷과 목공소는 희망동네가 행안부의 마을기업 지원을 받아 만든 것이다. 마을카페 인테리어를 할 때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을 통해 발굴된 많은 인재들이 참여를 하였고 지금도 애정이 각별하다. 일회용 믹스커피도 늘 떨어지기 일췌였던 도서관 형편에 운영위원회의를 사이시옷에서 진행하며 2500원씩 하는 커피도 각자 사서 마시고 매출 올리기에 적극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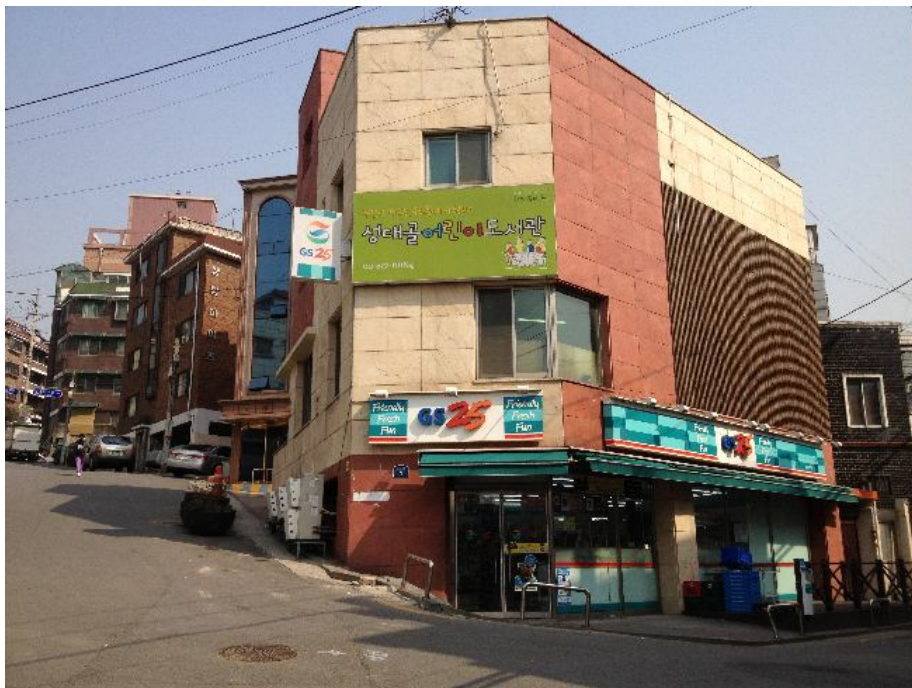
Q.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회원의 회비와 지역주민, 상가 등의 후원금으로 70%, 나머지는 마을장터나 운영진의 아르바이트로 마련한다. 재정적인 부분은 늘 고민이지만 가장 크고 어

려운 고민은 아니다. 마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도서관 운영을 함께 할 운영위원을 찾았고, 개관 후 두 달 정도가 지나 10명이 운영위원이 위촉이 되었다. 그리고 도서관 지킴이 활동가를 모집해 15명 정도가 매일 오전, 오후로 당번을 했다. 그렇게 매주 1회 이상 도서관에 일일사서를 하고 행사에 주체로 참여를 하면서 마을활동가들로 성장하고 있다.

Q. 성대골 주민들의 숙원이 “학교 만들기”라던데?

- 성대골인 상도 3, 4동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상도초등학교죠. 인구가 6만에 가까운데 초등학교가 하나라니 정말 이상하지요? 상도3동에 초등학교가 없어서입니다. 지역의 학교부지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고, 출산율이 점점 줄고 있어 초등학교 증축이 어렵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마을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도 초등학교생이 천명이상이 살고 있는데 인근에 5개의 초등학교에 나뉘어 다니고 있고, 마을에 안전한 통학로나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상도3동에만 성범죄자가 5명이 살고 있다고 하니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 주민들이 직접 해결 해 나가야겠지요.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전경

③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구 분	주 요 기 능	입주공간	비 고
청년일자리허브	· 청년일자리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 미래 청년일자리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위치 : ①동 1층 · 규모 : 1,782㎡	· 입주 : '13.3월 · 운영 : 연세대학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발굴·육성	· 위치 : ①동 1층 · 규모 : 1,163㎡	· 입주 : '13.3월 · 운영 : (사)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지속가능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구현 · 단계별 컨설팅 및 사업실행 지원	· 위치 : ⑧동 3층 · 규모 : 988㎡	· 입주 : '12. 8월 · 운영 : (사)마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 퇴직자 은퇴후 인생설계 프로그램 발굴 · 자원봉사, 취업 및 창업 등 활성화 지원	· 위치 : ⑧동 1~2층 · 규모 : 1,113㎡	· 입주 : '12.11월 · 운영 : (사)희망포레미

청년일자리허브 소개

□ 기관 개요

- 위 치 : 은평구 녹번동 舊 질병관리본부 내 1동 1층(1,782㎡)
- 공간구성 : 청년단체 공유사무실 및 허브 사무실, 카페 및 공동부엌,
청년작업장 및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
- 위탁기관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12.12.14~'14.12.13)
- 기 관 장 : 전효관('64년, 전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장)
- 주요역할
 - 청년 일자리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청년 주도 프로젝트형 교육
 - 사회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청년 일거리·일자리 발굴 및 모델개발
 - 청년 일자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 청년을 중심으로 자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무종력지대) 운영

□ 2013년 주요사업

○ 청년일자리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

- 청년 노동생활 관련 실증조사 및 의제별 연구사업(정책 및 각종연구 지원, 포럼 등)
- 청년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한 청년참여네트워크 운영(100인 위원회, 청년커뮤니티 지원 등)
- 문화, IT, 지역자치 등 각 분야 현장 및 전문가 연계 프로젝트형 교육사업(청년학교 등)

○ 청년 일 경험 제공 및 일자리 발굴 사업

- 청년 일경험 및 역량 배양 기회 제공 사업(공공근로 연계 청년혁신활동가 양성 등)
- 청년 일자리 발굴 사업(청년허브-청년단체 공동 일자리 모델 발굴 워킹그룹 사업 등)
- 청년 일공간 지원 사업(청년허브 시설 내 공유 공간-미달이사무실, 카페 등 운영)

○ 청년일자리 관련 민관 협력 및 국내외 교류

- 청년일자리 관련 사회적 자원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민관협력, 전문가협력망 구축 사업 등)
- 청년노동, 새로운 일자리 관련 글로벌 교류협력(국제포럼, 해외현장 조사교류 등)
- 청년일자리 관련 지식정보 아카이빙 및 공유, 사회적 관심 제고(온라인 사업, 대외홍보 등)

□ 공간운영 및 향후계획

○ 청년허브 공간 컨셉 및 구성

- 공간 컨셉 : “무중력 지대”, 현실적 제약(중력)에 안주하지 않고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 모색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열린 공간
- 공간 구성 : 알학습모임·휴식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공간(미달이사무실, 세미나실 및 청년공작실, 다목적홀 “활력”, 창문카페 및 공유서재, 공간 ‘휴’ 등)으로 구성

○ 「무중력 지대」 확대 설치

- 일하는 청년을 위한 무중력 지대
 - G밸리, 성수동 등 청년근로자 밀집지역에 문화활동, 휴식, 네트워크가 가능한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서의 ‘지역소망성’ 제고
- 일을 찾는 청년들을 위한 무중력 지대
 - 노량진, 신림동 등 청년구직자 밀집지역에 동아리활동, 스터디그룹,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구직의 어려움 해소

- 창조적 청년들을 위한 무중력 시대
- 신촌, 돈암동 등에 다양한 창작 및 문화활동 제공으로 청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창작활동에 기여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공간구성도



다목적홀 “활력”



미담이 사무실



창문 카페 및 공유 책장



공간 “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지역별, 특성별 체계적인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통해
실직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상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기관으로 정립
-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우수한 기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舊질병관리본부 內 1동(총 1,163㎡)
- 주요시설 : 카페형 오픈오피스, 공동교육장,
사회적경제매장, 프로보노실 등
- 운영주체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주요기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간 연대와 협동의 허브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속가능성 제고>

네트워크 구축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정책 개발
•부문별 공동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허브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공공구매지원센터 운영 •소셜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성장단계별 경영지원	•인재육성 로드맵 구축 •사회적경제 교육교재 개발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	•통계관리 및 가치평가 개발 •자치구별 정책개발 지원 •사회적경제 조사 및 연구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 : '13. 4. 11

◆ 주요사업

- 시민사회 협동축진을 통한 공유자원 확대
 - 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간 네트워크 지원, 공동사업 지원

- 2) 섹터간 자원 공유망 구축
 - 기업사회공헌의 공유가치 창출로 전환 유도 및 자원 연계
 - 경영지원을 위한 재능기부단 활용도 제고,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한 R&D 지원 등
- 3)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 및 운영
 - 사회적경제 내외부 자원 정보 사업기회 등이 공유순환되는 허브
 - 온오프라인 허브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공간활용 최적화 및 스토리텔링화
-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13. 11월)
 - 해외 사회적경제 장기 실무연수 지원 및 우수사회적경제 사업의 해외 진출시 지원
 - 서울시와 협약 체결한 도시들과 협력사업 모색 등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1) 사회투자 금융 연계 지원
 - 사회투자기금 운용방안 설계 지원 및 모니터링, 기획투자 제안
 -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시스템 개발 및 운용
 - 2)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로드맵 및 과정개발,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 사회적경제 교육 수료생 대상 온라인 구인구직 중개시스템 구축
 - 3) 온라인 홍보
 -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온라인 허브 구축
-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 조직 전문가 발굴 육성 : '13. 5월 ~
 -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 전문가 교육 실시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 '13. 5월 ~
 - 부문별 공동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허브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연구조사 및 정책 건의 : '13. 5월 ~
 - 사회적경제 정책지표 조사연구, 공공구매 수요 및 공급자원 조사 등

서울인생이모작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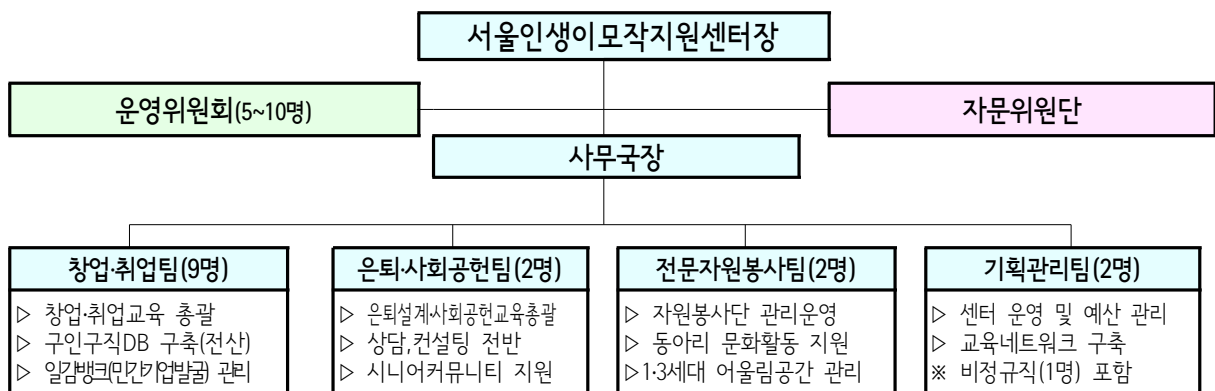
□ 시설개요

○ 시설현황

- 개 소 일 : 2012. 10. 22(사업자등록)
- 소 재 지 : 은평구 녹번동 5번지(구)국립보건원 부지 8동 1층일부, 2층 전체
- 위탁업체 : (사)희망도레미 (센터장 한석규)
- 운영인력 : 총17명[시지원 15명, 법인 자부담 2명(센터장, 북카페 매니저)]
- 이용대상 : 퇴직(예정)자 등 신노년층 포함 전시니어

○ 사업내용 : 신노년층을 위한 인생설계, 사회공헌, 재취업, 창업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자 재능나눔, 일자리 연계 지원 등

○ 조직 운영체계 정비 : 1센터 1국 4팀, 1위원회, 1자문위원단



○ 시설 운영 현황

－배움실, 이룸실, 나눔실－ 다수교육 및 그룹별 토의 등 모듈활동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구성	－상담실－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등 다양한 상담 실시	－커뮤니티공간－ 정보검색·공유, 독서, 휴식, 분임토의가 가능한 복합공간	－1·3세대 어울림마당－ 지역의 어르신과 아동이 함께하는 양육정보센터 형태의 문화 공간

□ 주요사업

○ 교육과정 운영

- 인생설계교육 : 연 120명, 4주 32시간 과정, 총 8회
- 사회공헌교육 : 연 120명, 4주 40시간 과정, 총 3회
- 창 업 교 육 : 연 120명, 4주 32시간 과정, 총 3회
- 재취업 교육 : 연 1,000명, 1주 12시간 과정, 총 30회

○ 시니어 사회참여 지원 강화

- 일감뱅크를 통한 구인처 발굴 : 연간 2,400개 발굴 목표
-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강화
 - 어르신 구인업종협회와 MOU체결, 취업연계 지원
-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 금융·경제·교육 등 전문분야 은퇴자 인력풀 구축(200명 발굴) 운영
- 시니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 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활동 영역에 대한 정보제공, 참여 유도
 - 별도 신노년단체 구성·운영 지원(월 30만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도·농 일자리 교류사업단 운영
 -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도시 유희어르신 일자리 연계로 도·농공동체 활성화
 - 농촌일자리 + 관광 + 소득을 프로그램화하여 결연 시·도 자원을 활용, 패키지 사업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일자리 모델 제시
 - 지방 농산물 서울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어르신직거래사업단' 운영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목 차

I

일반현황

II

센터 전략체계도

III

추진방향

IV

'12년 주요사업성과

V

'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I 일반현황

일반 현황

업무개시일 : 2012. 8. 23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8동 1, 3층

위탁 기관 : 사단법인 마을(2012.8.23~2015.8.22, 3년)

2013년 센터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총 예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2,285,820	932,400	309,000	1,044,420

조직 및 인력현황



구분	계	센터장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6명	1명	5명	4명	6명	7명	3명
현원	26명	1명	4명	5명	6명	7명	3명

II 센터 전략 체계도

미션

주민의 필요에 따라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서울 실현

비전

민·관 협력으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를 발굴·지원하는 기관

핵심가치

주민주도성
(지역주민의 나섬과 주인됨)

호혜성
(상호 평등한 관계)

협동성
(상호 마음과 힘을 합함)

마을성장
단계별 맞춤형
주민지원
체계화

마을활동가
발굴·육성
및
네트워크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대안적
마을사업
모델개발 및
지원

센터
경영역량강화

Ⅲ 추진방향

2012년

토대구축(씨뿌리기) 단계



2013년
상반기

배양기(싹 틔우기) 단계



마을과 주민의
연결

2013년
하반기

배양기(거름 주기) 단계



마을현장 중심의 주민지원시스템 체계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
시민 체감형 신규사업 개발 및 시범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 내실화

IV ' 12년 주요사업성과 : 5개 분야, 14개 사업 추진

- “우리마을프로젝트” 설계·실행을 통한 주민모임 형성,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절차 모델마련
- 마을지향행정 Ver.1.0(주민주도 맞춤형 지원시스템) 설계·실행
- 마을활동가 발굴·양성 및 이를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 자치구별 “마을 네트워크(마을넷)” 구축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 마을관련 중간지원조직간의 연계망 기초 마련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지원

- ① 우리마을 프로젝트
 - 제안접수 : 131건 / 선정결과 : 85건
 - * 협약 및 집행완료 : 82건
 - 청년의제 발굴 토론회: 2회 / 50명
- ② 마을공동체 주민사업 현장조사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센터 자체사업 접수 일원화
 - 주민상담 : 695건(전화, 센터방문, 현장방문), 현장조사 : 522건
 - 상담원 및 현장조사원 선발·교육 : 조사원 71명, 상담원 53명
 - 마을 맵핑 조사 : 공동체마을 85곳, 공동체 사업 379개
- ③ 아파트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추진
 - 아파트 관리비 인하 마을공동체 사업 시범단지 선정 : 11개
 - 관리비 실태 진단 및 주민교육 : 55회(선정 단지별 5회)
 - 아파트 단지별 타운홀 미팅 개최 : 11회(선정 단지별 1회)

마을공동체 정보관리

- ④ 마을 포털 구축을 위한 시범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방문자수 : 34,581명(2012.08.23~12.31)
 -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운영
 -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위치정보 제공(맵핑 시스템)
- ⑤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및 자료실 운영
 - 마을지향행정 개선방안 도출
 - : 절차, 서류양식, 심사표 구성 등
 - 심층사례 보고서 제작 : 7개
 - * 교육, 복지, 여성, 청소년 등의 마을살이 심층기록
 - 마을사례 영상기록물 제작 및 배포 : 23건
 - * 마을교육, 마을다큐멘터리 제작
 - 마을 아카이브 연구 및 기록관리 컨설팅 방안 도출

주민교육과 마을활동가 양성

- ⑥ 마을계획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발굴 · 양성
 - 집중워크숍 운영 : 1회(2박 3일)/22명
- ⑦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 대중 캠페인성 교육 : 810명
 - 분야별 활동가 양성교육 : 5개분야/248명
(미디어, 청년, 복지, 일반)
- ⑧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교육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 : 70회
- ⑨ 마을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교육콘텐츠 개발 및 배포 : 25종
 - 강사인력 풀 조성 : 개인 47명, 기관 4곳
- ⑩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
 - 미디어 제작활동 지원 : 6건
 - * 신문제작, 라디오방송, 영상 · 이미지
 - 마을사례영상기록 : 5편
 - 청년마을미디어 공작프로젝트 : 3건

마을공동체 시민안내 및 전파

- ⑪ 마을공동체 자원사업 시민안내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 리플릿 4종, 소개영상 2종, 책자 1종
 - 온라인 홍보
 - : E-BOOK 발간 37종, 홍보레터 20건
 - 시 등 유관기관과 홍보협력
 - : 마을공동체 TV 강연 공동진행 2건, 언론보도 협조 등
- ⑫ 마을박람회 등 행사개최
 - 광장행사 : 1회/약 1만여명
 - * 공동체부스 운영(30개),
평상토론회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
 - 마을행사지원 및 탐방 : 10개
 - 마을투어 코스 운영 : 5개 코스
 - 마을컨퍼런스 : 1회/약 300여명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 ⑬ 국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민간네트워크 : 25회
 - * 사회적경제, 주거, 문화, 미디어,
도시농업, 주민자치, 아카이브,
마을넷, 상포계나눔
 - 부문 중간기관 네트워크
 - : 연석회의 10회, 컨퍼런스 1회, 워크숍 3회
 - 청년과 마을 네트워크
 - : 토론회 1회, 네트워크 파티 4회
- ⑭ 해외 마을공동체 사례조사
 - 해외 사례조사 : 20건
 - * 일본, 영국, 독일, 덴마크, 호주 등
 - 해외 마을공동체 소식책자(1,000권)
및 E-BOOK 발간
 - 해외 컨퍼런스 교류
 - : 영국 로컬리티 컨퍼런스 참석
및 5개 기관방문

V ' 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마을성장 단계별 맞춤형 주민지원 체계화

목표	주민제안사업 활성화	작고 쉬운 마을사업 발굴	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추진 내용	<div><div>● 주민제안사업 접수일원화로 주민편의 도모</div><div>■ 센터 홈페이지에서 통합접수</div><div>● 상시 상담 체계운영</div></div> <table><tr><th>구분</th><th>목표</th><th>`13. 4 현재</th></tr><tr><td>전화상담</td><td>1200건 이상</td><td>872건</td></tr><tr><td>내방상담</td><td>70건 이상</td><td>26건</td></tr><tr><td>파견상담</td><td>550건 이상</td><td>241건</td></tr></table> <div><div>● 심사지원을 위한 현장조사</div><table><tr><th>구분</th><th>목표</th><th>`13. 4 현재</th></tr><tr><td>현장조사</td><td>1,000건</td><td>549건</td></tr></table></div>	구분	목표	`13. 4 현재	전화상담	1200건 이상	872건	내방상담	70건 이상	26건	파견상담	550건 이상	241건	구분	목표	`13. 4 현재	현장조사	1,000건	549건	● 「우리마을프로젝트」 확산 ■ 마을형성 단계별 맞춤지원 ■ 지원규모 확대 :122건 (12년 82건) – 초기 주민모임형성지원 : 80건 – 도약기 마을계획 지원 : 40건 – 성장기 마을계획 지원 : 2건 ➢ 총 3차 중 1차 선정결과 <table><tr><th>계</th><th>초기모임형성</th><th>도약기마을계획</th></tr><tr><td>74건</td><td>53건</td><td>21건</td></tr></table> ■ 지원대상 다각화 – 주민단체 뿐 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단위 지원 신설	계	초기모임형성	도약기마을계획	74건	53건	21건	● 칸막이 없는 마을지원절차 지원 ■ 5개 실·국 16개사업 계획·집행지원 – 돌봄경제문화주거 분야 – 계획수립공모절차 등 사전협의 – 자문심사위원조사원 등 추천 – 사업간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조정 ● 선정사업 내실화 지원 ■ 전문 컨설팅 3개 이상 – 부모커뮤니티, 상가마을, 북카페, 공동주택 분야 협의 중 ● 사업평가 지원 ■ 부서별 사업평가/분기별종합평가
	구분	목표	`13. 4 현재																								
전화상담	1200건 이상	872건																									
내방상담	70건 이상	26건																									
파견상담	550건 이상	241건																									
구분	목표	`13. 4 현재																									
현장조사	1,000건	549건																									
계	초기모임형성	도약기마을계획																									
74건	53건	21건																									
성과	주민의 등장 환경조성	주민의 나서기 촉진	주민주도사업 효과성 증진																								

마을활동가 발굴·육성 및 네트워크

목표

활동가 성장지원

● 마을활동가 교육 및 성장

성장 과정	주민모임	보조사업 활동가	마을상담원	마을강사	마을연구원
교육 분야	찾아가는 마을공동체강좌	자라남 학교 축전자 교육	상담원 교육	강사교육	마을리더 교육

● 주민이 기획하고 마을에서 강의하는 강좌지원

구분	목표		`13. 4 현재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50건	300명	12건	160명

● 대상자별·주제별 맞춤형 과정 운영 : 약 500명(연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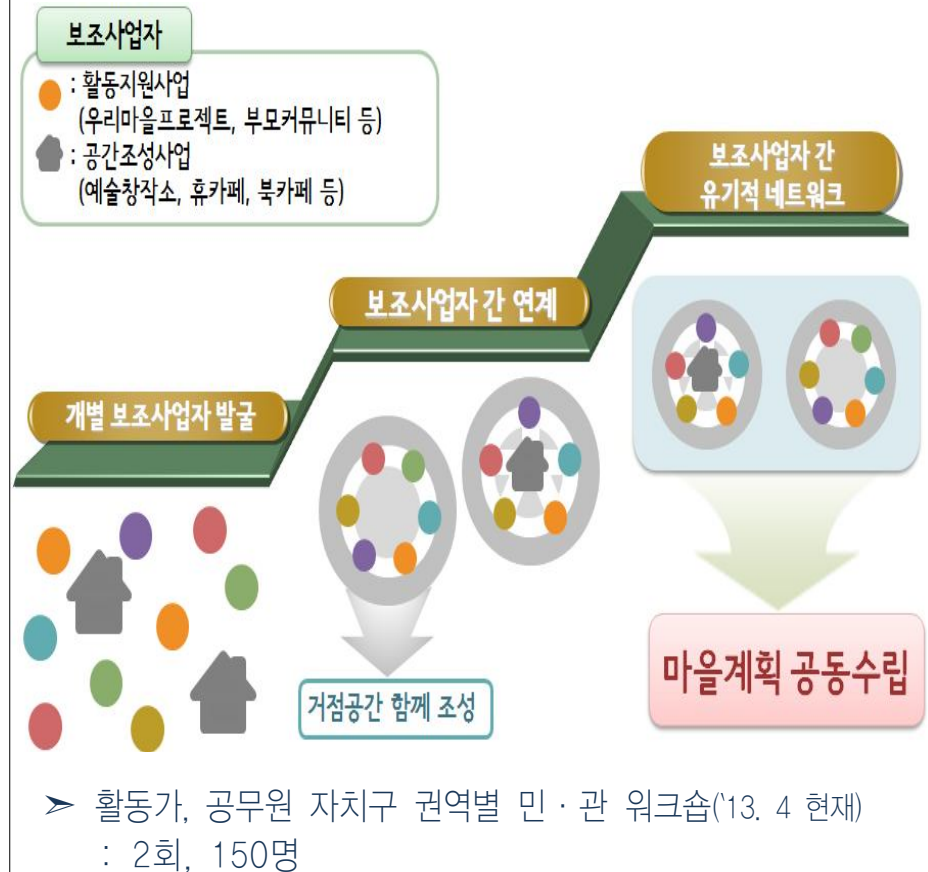
구분	활동가 양성	상담원 양성	강사 양성	마을연구원 발굴	신주체 양성 (청년, 은퇴자 등)	마을기록자 양성
목표	15회, 260명	3회, 50명	1회, 10명	1회, 8명	80명	5회 160명

➢ 상담원 양성 교육(`13. 4 현재) : 1회, 50명

● 마을강사 정보은행 운영

구분	목표 (누적인원)	`13. 4 현재 (누적인원)
홈페이지 강사 등록	100명	93명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성과

주민의 성장과 연결로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목표	민관 전문가와 협력채널 구축	마을현장과 협력채널 구축	시민과 공감채널 구축
추진 내용	● 마을공동체 실무협의회 운영 ■ 시책현안 및 주민제안을 다루어 시범 및 연계사업을 개발건인 ■ 자문을 넘어 전문가와 현장이 결합된 워킹그룹 발굴·운영 ● 은평혁신파크 내 입주센터간 협조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월2회 이상 정례회의 개최 - 공동협력 의제발굴 및 추진	● 자치구 단위 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 ■ 센터직원이 25개 자치구마을 현장에 월1회 이상방문 - 구 공무원과 마을활동가의 의견 청취 후 현안문제 지원 -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설치 및 안정화 지원 ■ 마을넷 연석회의 정례화 - 월회 개최 (매주 세 번째 금요일) ● 부문별 마을현장 활성화 ■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의 민간주체 간 협업구조마련 ■ 마을단위 시범사업개발지원 - 임대아파트, 마을지향복지관 등	● 마을공동체정책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활성화 ■ 관련 책자영상 등 콘텐츠 생산지원 - 센터사업을 통해 콘텐츠 발굴 - 시 홍보부서와 협업진행 ■ 언론보도자료 배포활성화 - 대중적 매체에 기획기사 배포 ● 뉴미디어 활용 공감채널 마련 ■ SNS 활용한 실시간 소통 활성화 - 센터장 주요직원 SNS 전략적 활용 ■ 마을지향형 커뮤니티 맵핑 등 추진환경 조성 ● 사례확산 토론회 개최 ■ 국내외 마을공동체 사례공유 - 연 12회 개최
성과	마을공동체사업 혁신정책 생산	현장요구에 민첩한 대응력 향상	마을공동체 발굴·사례확산

대안적 마을사업 모델개발 및 지원

목표	마을기업 발굴 및 연계 지원	청년·은퇴자 마을살이 모델개발	시정현안 혁신사업 개발
추진 내용	●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된 주민모임이 마을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80개 마을기업 집중 발굴 - 행안부마을기업(30개), 서울시마을기업(45개) 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과 협력 ● 확산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 광역네트워크형 사업모델 발굴 - 10개 분야 프랜차이즈 방식	● 청년특화 공공근로자 선발·훈련·멘토링 실시 ■ 45명 선발, 8개월 운영 ➢ 사업장 선정 : 16개 구, 23개 사업장 - 공고 모집/선발 집중교육 유형별 마을활동 1달1회 워크숍 상시 멘토링 ■ 마을공동체 활동관련 실무배치 - 마을생태계형 : 자치구별 마을 네트워크 성장을 위한 마을조사 및 매개자 역할 - 마을미션형 : 마을과 청년의 연결점을 찾는 청년(2~3인)이 주체적인 미션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활동 진행 ※ 청년일자리허브센터 협업 ● 은퇴자 대상 <마을사랑방 주인 아카데미> 개설 ■ 20명, 2개월과정 ■ 여가형, 자기실현형을 중심으로 관계하고 소통하는 마을 어른으로 살아가는 삶 제시	● 서울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컨설팅 ■ 청년, 다문화, 임대아파트 공동체 등 시범사업 종합컨설팅 : 2개 이상 ■ 정책 현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T/F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설계 ● 다양한 주체의 협력으로 혁신사업모델 제시 ■ 의제융합형 마을프로젝트 실행모델 개발 및 지원 - 특화형 임대주택 등 : 3개 이상
성과	마을기반 사회적 경제 조성	마을 청년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 시민체감도 향상

센터 경영역량 강화

목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공공 경영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인재육성
추진 내용	● 마을기록체계 시범구축 ■ 마을기록 시범마을 선정: 7개 ■ 커뮤니티맵핑 시범마을 선정: 5개 ■ 마을기록 캠페인: 7개 마을 - 마을기록교육대상자의 마을기록전시등 ● 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 커뮤니티 맵핑 초기구축 - 마을공동체 정보 온라인 허브수행 - 주민제안사업 접수, 관련DB구축 준비 ➢ 임시홈페이지 기능개선: 접수시스템 정비 등 ● 정보자료실 운영 - 기록물 수집 및 오프라인 자료실운영 ● 센터 사무기록 전산화 -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 청렴·투명 경영시스템구축 ■ 회계·계약·인사 등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준수사항 철저히행 ● 행정주기에 발맞춘 협업추진 ■ 시 사업계획, 평가, 예산편성 감사, 각종 보고회 등의 시의성 맞춰 신속히 대응 ● 성과지표제정 및 관리 ■ 성과지표 제정 및 분기별 목표관리 점검실행	● 직원 역량강화 교육정례화 ■ 공직자 청렴·윤리의식 향상 ■ 공동체 인문학·경제학 지식함양 ■ 실천력 집중 업그레이드 (행정집행실무, 사례관리, 코칭 상담 및 컨설팅 능력향상)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좌활용 → 내부교육 전문기관 파견교육 병행 ● 협동·성장 지향적 조직문화 조성 ■ 직원 학습동아리, 팀워크 지원 ■ 근무평가를 통해 직원성장 독려
성과	도시마을공동체 역사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시 행정요구 대응력 향상	현장 지원력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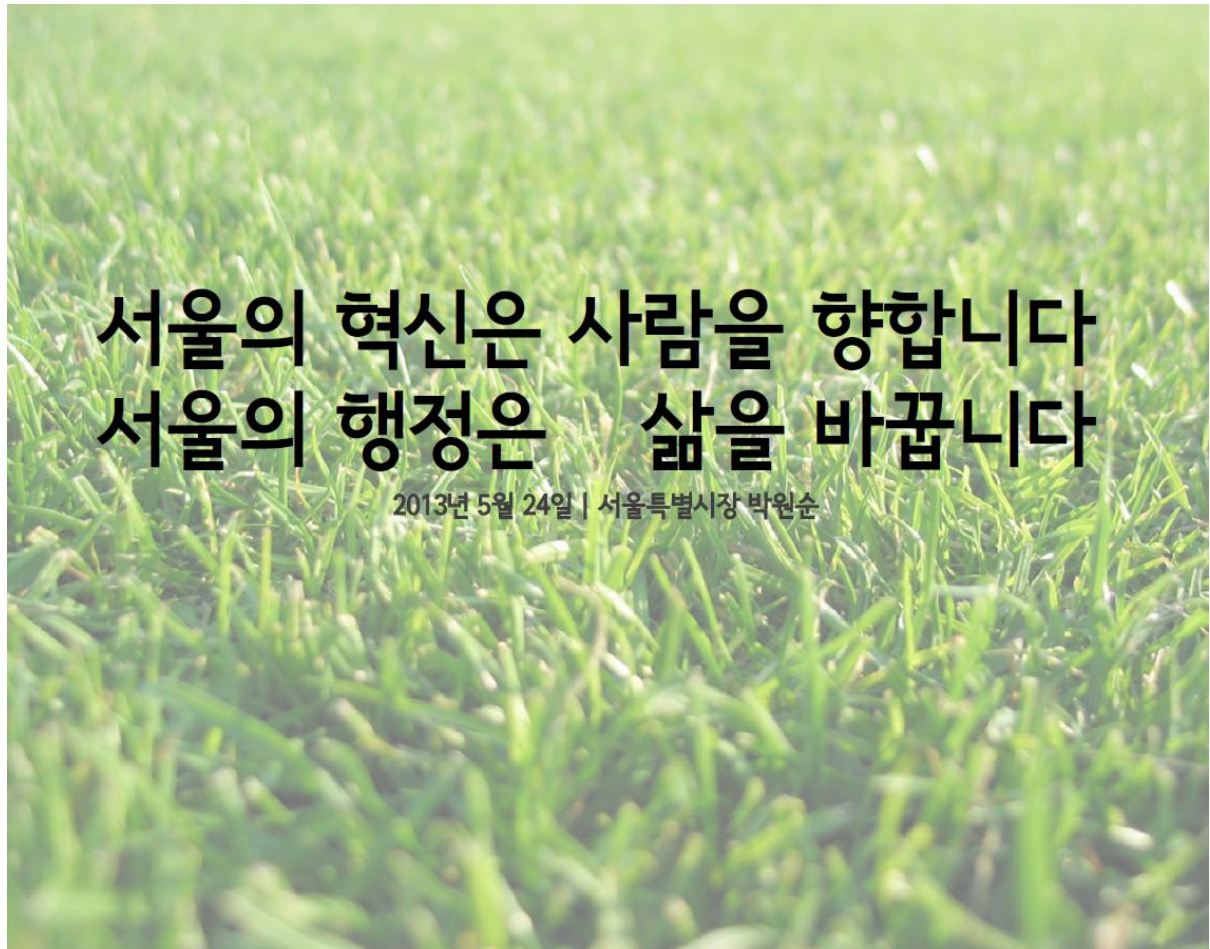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혁신정책 2.0 현장을 가다

- ◇ 사회: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 ◇ 발표 1. 서울시 열린행정 2.0을 소개합니다.
박 원 순 서울시장

- ◇ 발표 2. 공공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 만들기
최 용 선 광주 광산구 정책팀장

- ◇ 질의응답 및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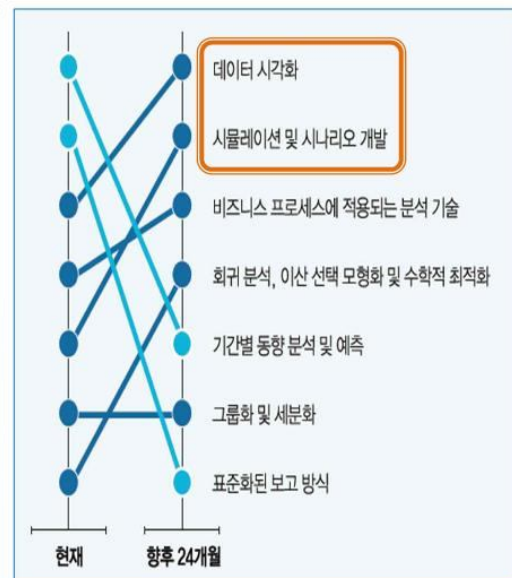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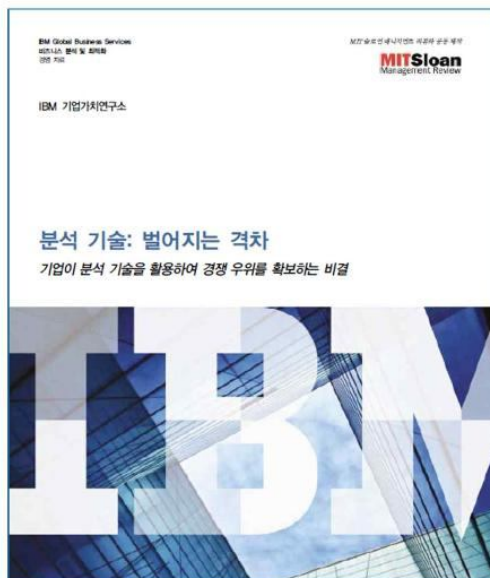
워크숍 발표 2



공공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 만들기

최용선_광산구청 정책팀장

www.facebook.com/win2020





※ 출처: The New Intelligent Enterprise, MIT 슬로언 매니지먼트 리뷰와 IBM 기업가치연구소의 공동 조사.
Copyright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1.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내다버리지 않는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CEO

“데이터를 얻는 능력, 즉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 처리하는 능력,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 시각화하는 능력, 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앞으로 10년간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 할 배리언, 구글 수석경제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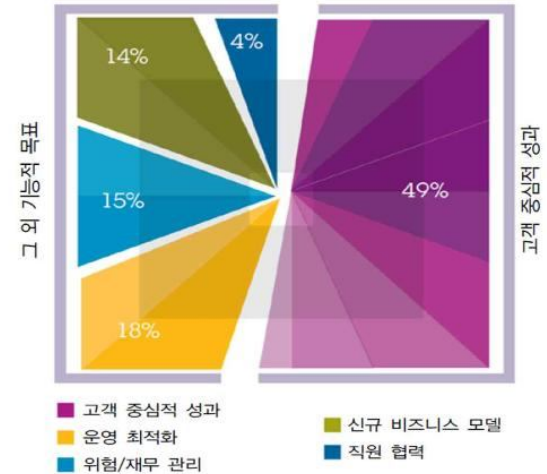


분석: 빅 데이터의 현실적인 활용

혁신 기업이 불확실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해 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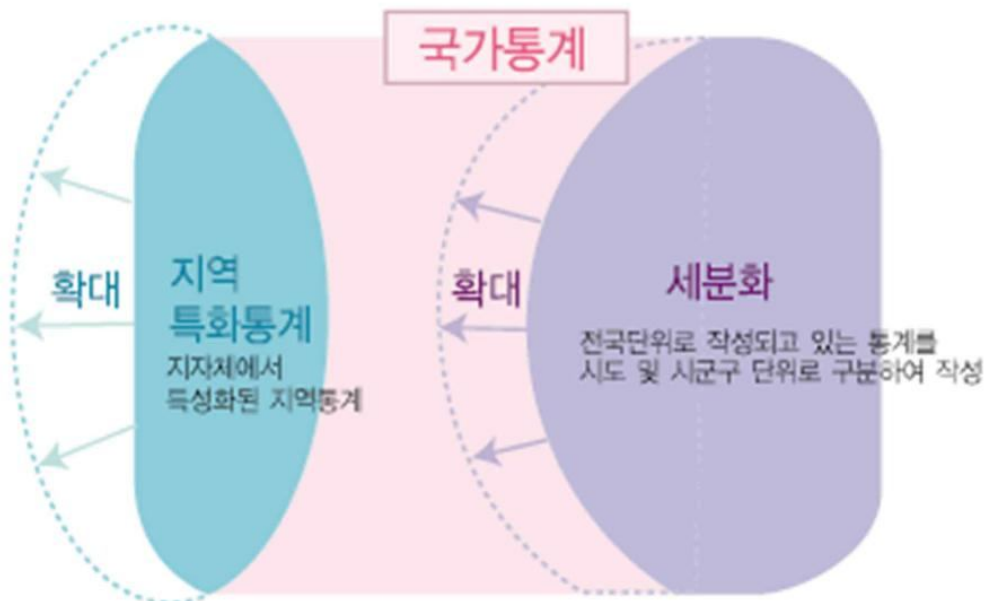


빅 데이터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성과



빅 데이터 도입을 통해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총 응답자 수 = 1,067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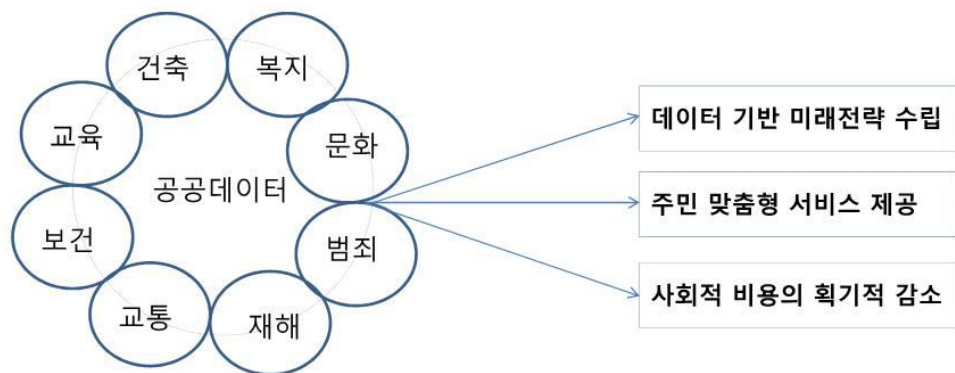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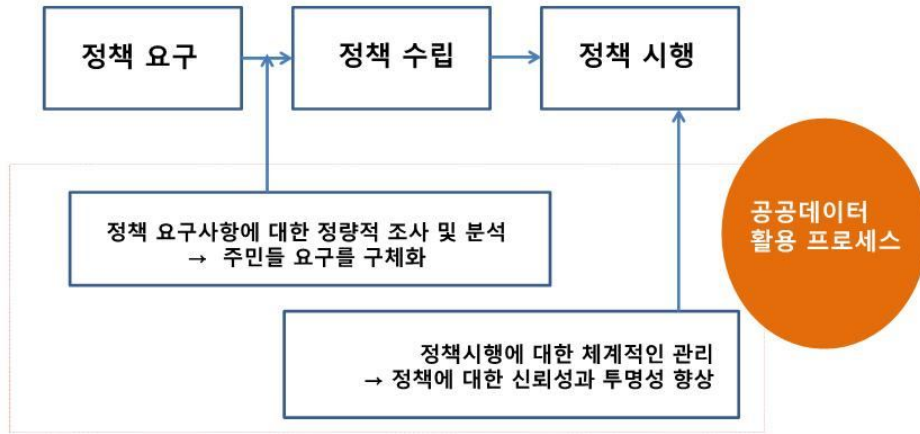
통계 및 행정데이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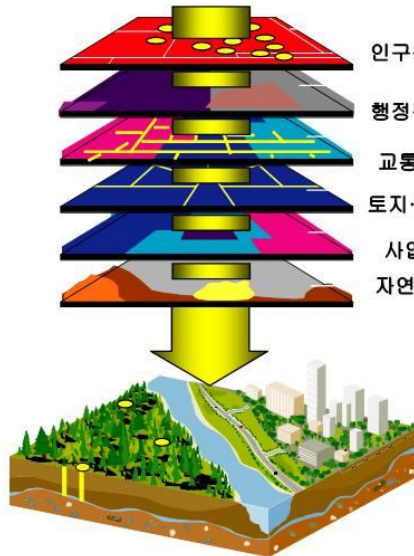
통계 및 행정데이터 활용?







통계와 공공데이터, 그리고 GIS의 결합



GIS 활용 이유: 사회경제 활동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80% 이상이 지리공간 데이터로 적극 활용 가능

- 비용절감: Save Money - Cost Avoidance
- 시간단축: Save Time
- 효율성 향상: Increase Efficiency
- 정확도 향상: Increase Accuracy
- 생산성 증대: Increase Productivity
- 매출확대 기여: Generate Revenue
- 의사결정 지원: Support Decision Making
- 예산책정지원: Aid Budgeting
- 업무과정 자동화: Automate Workflow
- 정보체계구축: Build an Information Base
- 자원관리: Manage Resources
- 정보접근용이: Improve Access to Organization
- 의사소통 및 협력 지원: Increase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Christopher Thomas and Milton Ospian, Measuring UP - The Business Case for GIS, 2004

사람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

Goal

- GIS지도를 토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수요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구
- 정책의 타당성 입증 및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 해소
- 정확한 통계정보와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현장행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객관적 근거 제시

Method

7개 분야
52개 소주제
205개 GIS 행정지도 제작

안전 도시현황 사회복지 보건의료 대중교통 교육 문화여가

Data

정부 및 기관 통계
(23종)

광산구 통계
(24종)

광주 광산구, 지자체 최초로 'GIS 행정지도' 제작해 호평

통계청 사례 발표 후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2012-12-12 18:51 | 광주CBS 초기본 기자



광산구는 GIS 행정지도를 발간한 뒤 지난날 29일에는 통계청에서 주관한 '2012년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통계자료 및 공공 데이터를 GIS와 접목시켜 정책을 수립한 사례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사례 발표 이후 기상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광산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광산구의 GIS 행정지도에 대한 좋은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광산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5개 권역, 21개 동의 전속임 상황과 그 이유를 담은 지도를 만들고, 통근과 통학 패턴을 담은 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3년간의 사건사고를 비롯한 범죄통계를 GIS를 이용해 지도로 제작하는 '안전지도'를 제작해 광산구 지역의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광산구 최홍선 정책팀장은 "행정수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GIS 행정지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 광주 시내버스 노선 현황(광산구청 제공)



'원룸 쪼개기' 등 위법건축물 신도심에 집중

기사등록 일시 [2012-09-15 13:54:13]

【광주=뉴스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광산구 지역 내 신도심으로 분류되는 수완신장신가동의 위법건축물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 광산구가 발행한 '광산구 위법건축물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산구 지역 신규 건축허가 건수는 총 687건이다.

이중 신도심 지역인 수완신장신가동의 허가건수가 총 367건으로 전체 허가건수의 53.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0년 역시 전체 571건 중 56.2%(321건)를, 2009년 424건 중 224건인 52.8%를 해당 신도심 지역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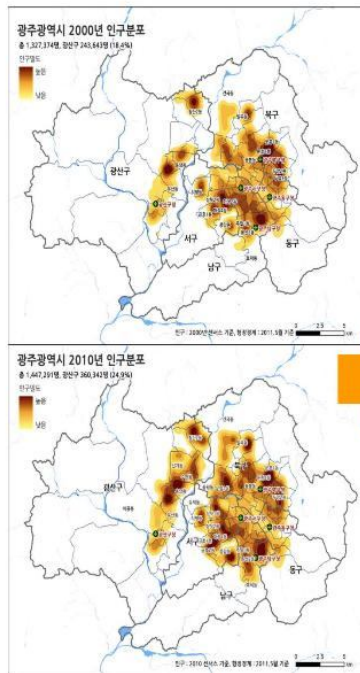
이는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신도심이 정착돼 갈에 따라 건축물이 증가한 것으로 계획된 시가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으로 분석됐다.

반면 도심형질에 따른 위법사안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건축물 단속건수는 무려 4712건으로, 이중 2010년 7월 이전 2180건, 같은 해 7월 이후 2532건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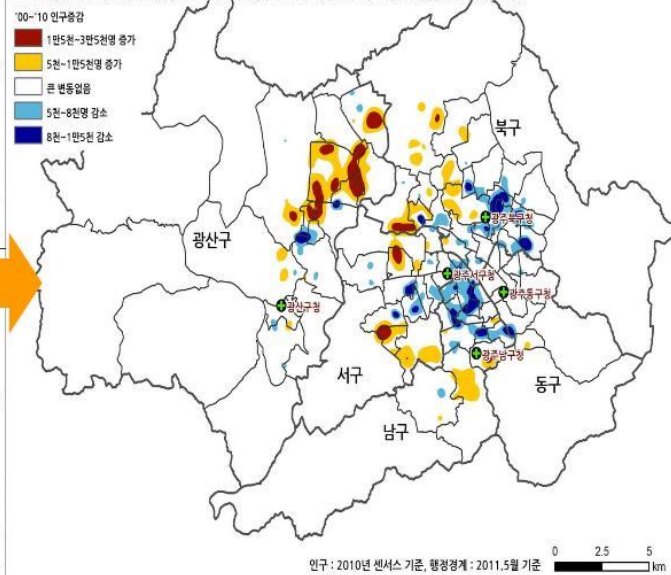
위법건축물은 2010년 7월 이전 신장동(275건, 12.6%), 우산동(216건, 9.9%), 하남동(209건, 9.6%), 어룡동(162건, 9.0%) 순이었으나 2010년 7월 이후 신장동(927건, 36.6%), 수완동(555건, 21.9%), 신가동(273건, 10.8%), 칠단동(160건, 6.3%)으로 이어지는 등 신도심 지역에 집중됐다.

15



광주광역시 '00년~'10년 인구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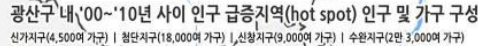
2000년 광주인구 1,327,374명(광산구 243,643명) | 2010년 광주인구 1,447,291명(광산구 360,3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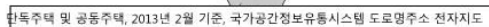
인구 : 2010년 센서스 기준, 행정경계 : 2011.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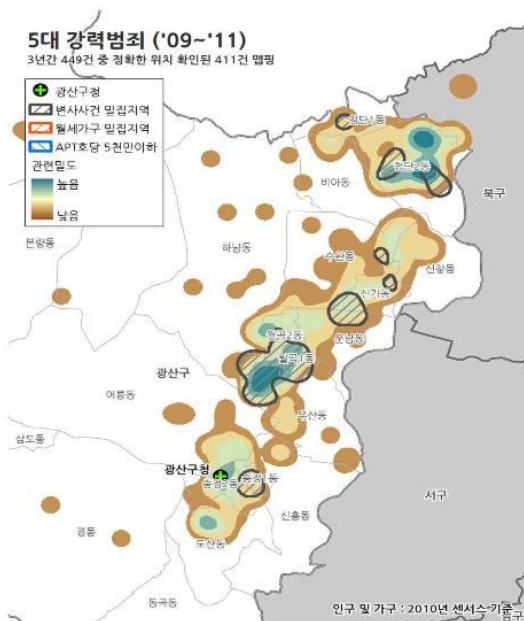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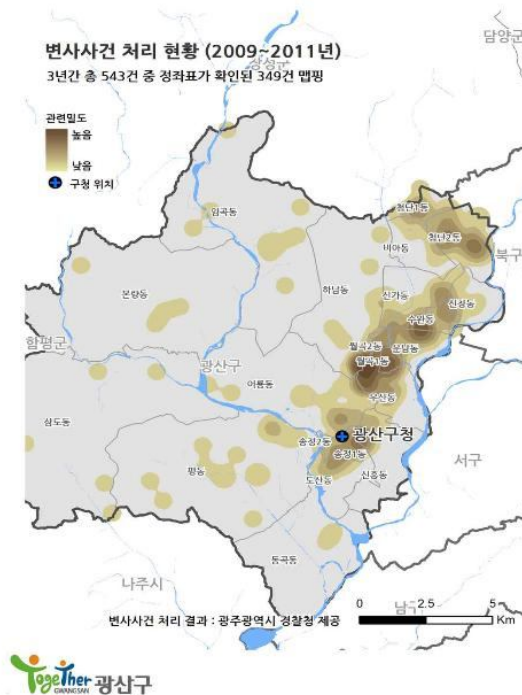


16



- 10세 미만 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10대 인구비율은 광산구 전체에 비해 매우 낮음
- 이를 통해 미취학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자녀를 가진 30대 중반~40대 초반의 부모가 이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알 수 있음
- 30/40대 젊은 가족들이 생활/문화/복지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바라는 다양한 요구를 살펴보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 기획의 필요성 대두





19

광주일보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광주 자살 증가율 최고

2010년 442명 3년새 45% 급증·노인 자살도 늘어

전문센터 확대·관련기관 협조체계 시급

광주의 최근 3년 세 자살 사망자 수가 45%나 뛰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광주 시 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박상익)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2010년 총 자살 사망자는 442명으로 전년 대비 2008년(305명)에 비해 44.9%가 증가했다. (관련기사 18면)

또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2008년 22.1명을 비롯해 매년 전국 평균치 아래였으나 2010년 30.7명으로 전국 평균(28.7명)을 웃돌고 있다.

지역별로는 높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광산구의 자살률이 32.9명(2010년 기준)로 가장 높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구의 자살 사망률이 21.1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30.5명, 서구 30.3명, 북구 30.2명을 기록했다. 또 70~79세 광주 지역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 기준)이 2009년 58.9명에서 2010년 68.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소년 자살률도 2010년 10.3명을 기록해 전년 10.6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살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자나 고인자를 전문적으로 다룰 센터가 극소수이고, 자살에 대처하는 경찰·건강구조팀과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또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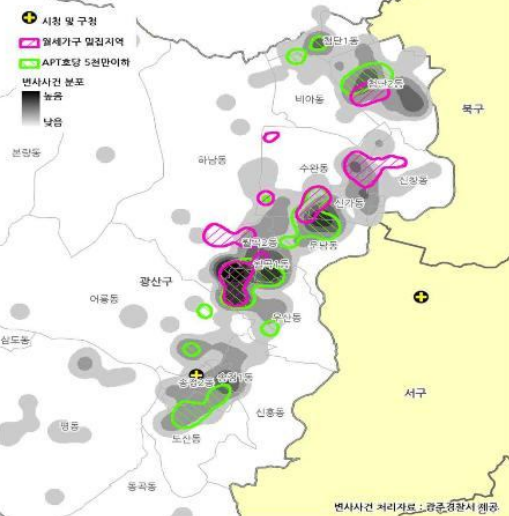
광주 지역에서는 현재 자살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기관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각 자살구의 정신보건센터와 생명지원회, 자살방지협회 등의 지원이 부족해 자살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살의 최고 위험군인 자살 시도자의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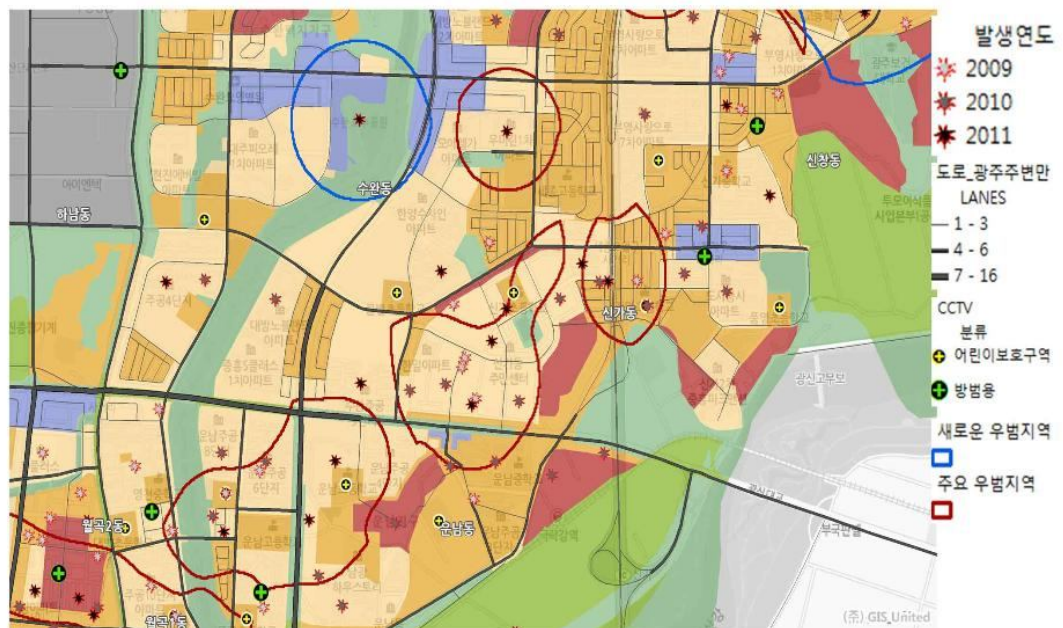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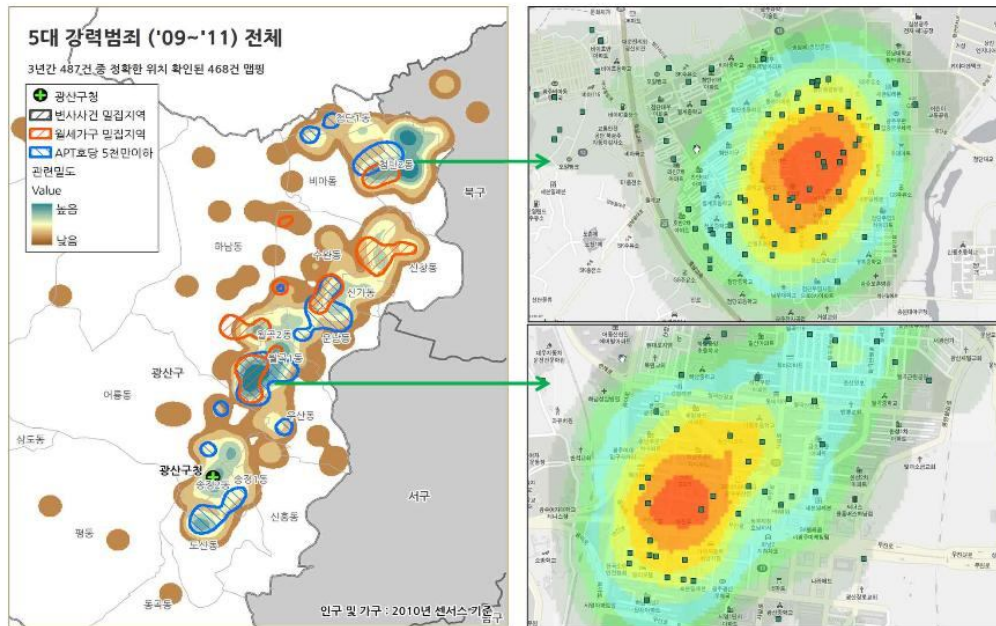
박상익 광주 시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에 대비해 지역사회 차원의 응급구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와 정부기관 등이 협조해 자살예방으로 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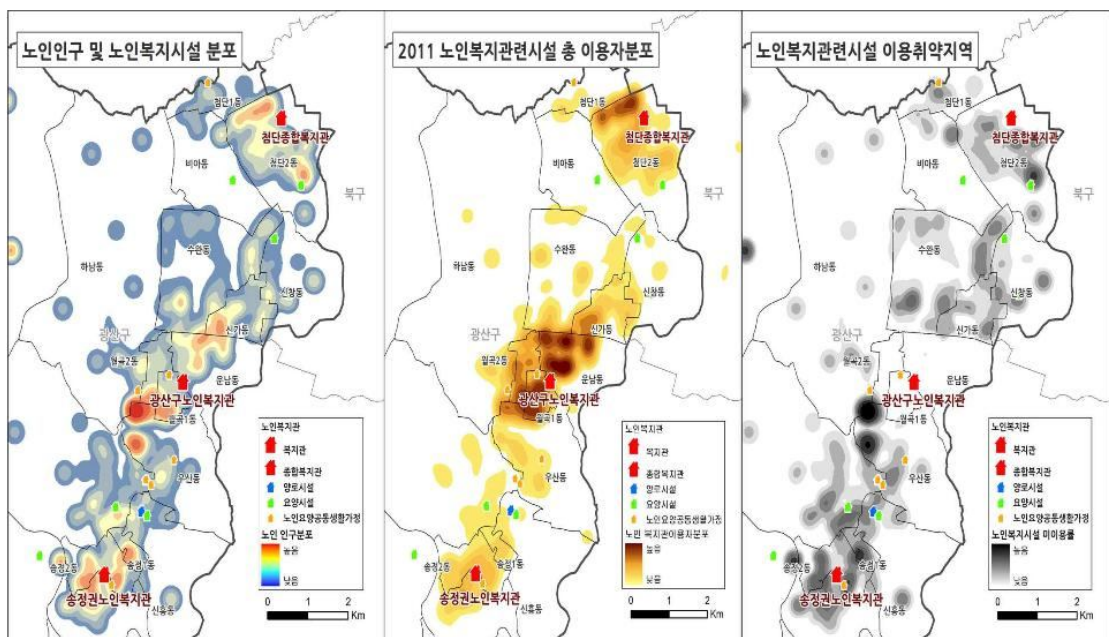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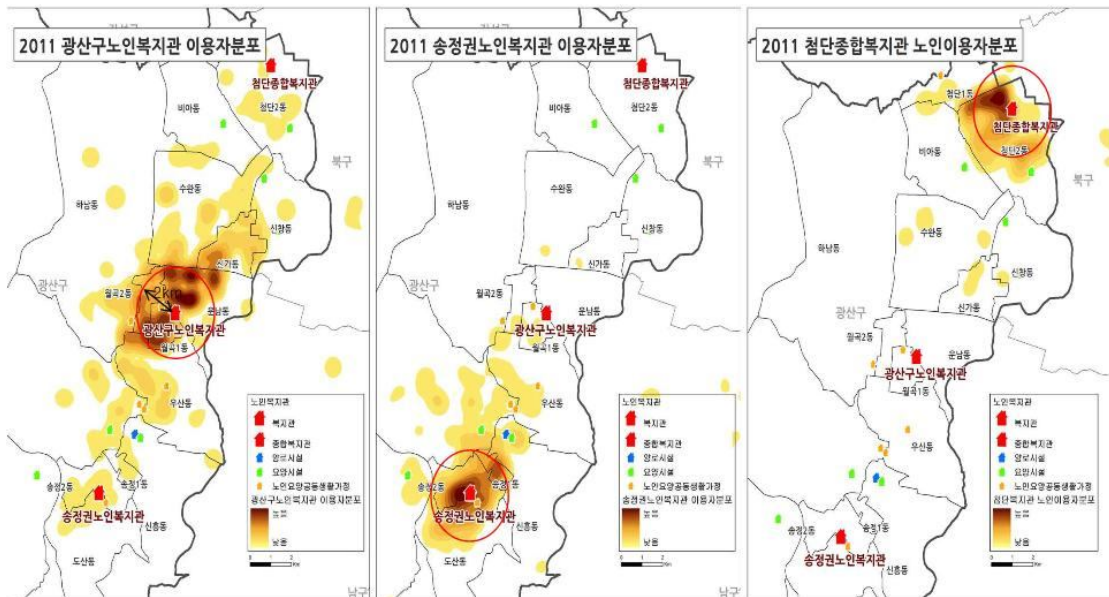
/김대영기자 bigim@kwangju.co.kr

'09년~'11년 변사사건
변사사건 : 543건 중 정확한 위치 확인된 366건 맵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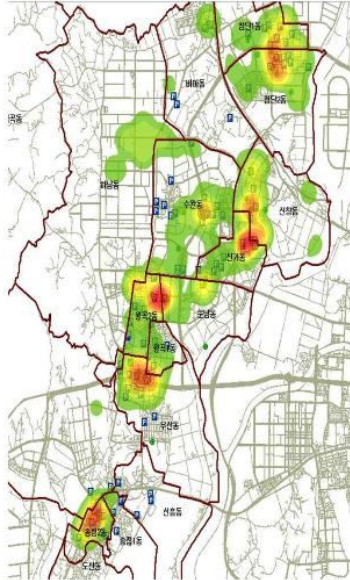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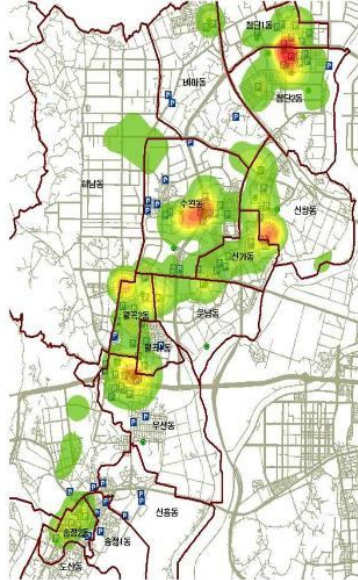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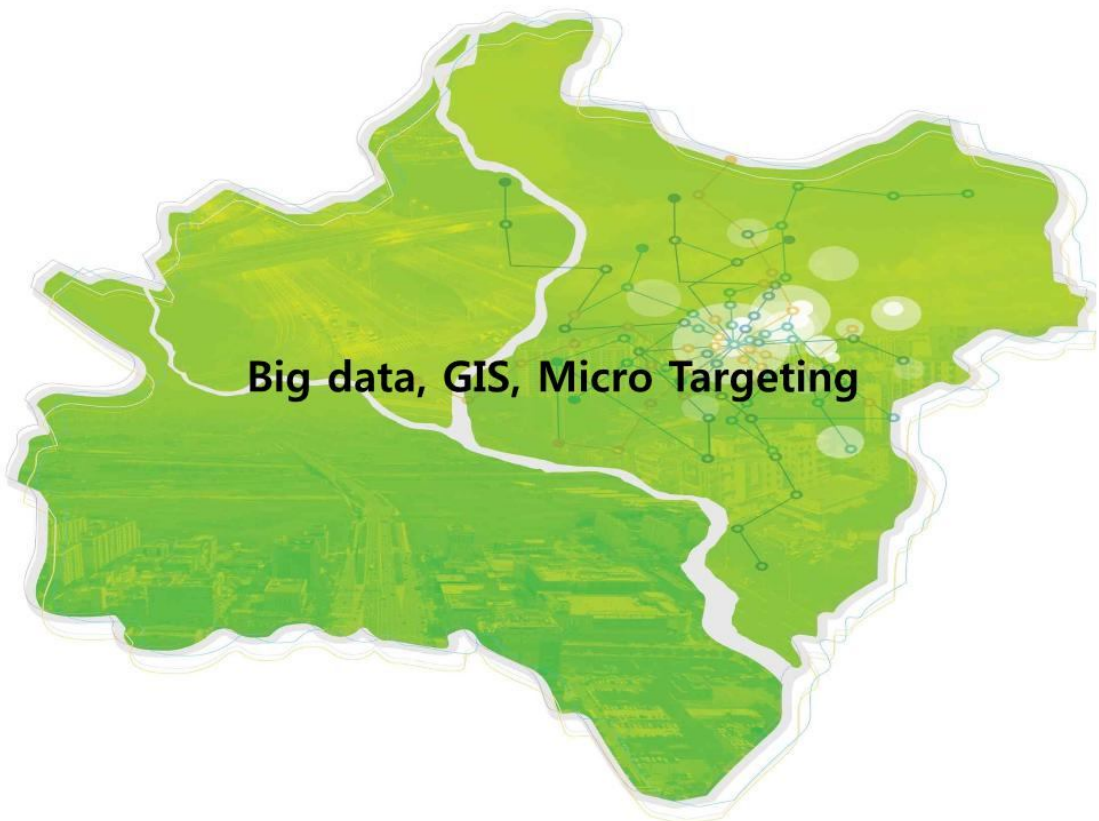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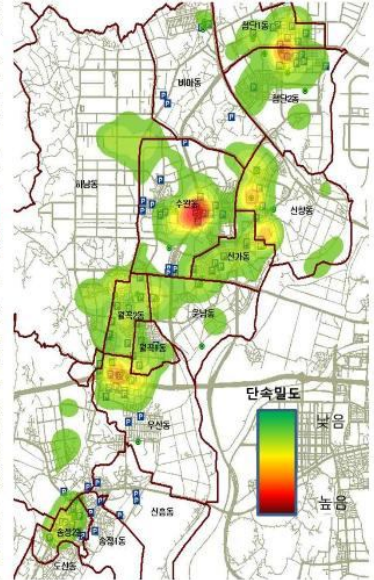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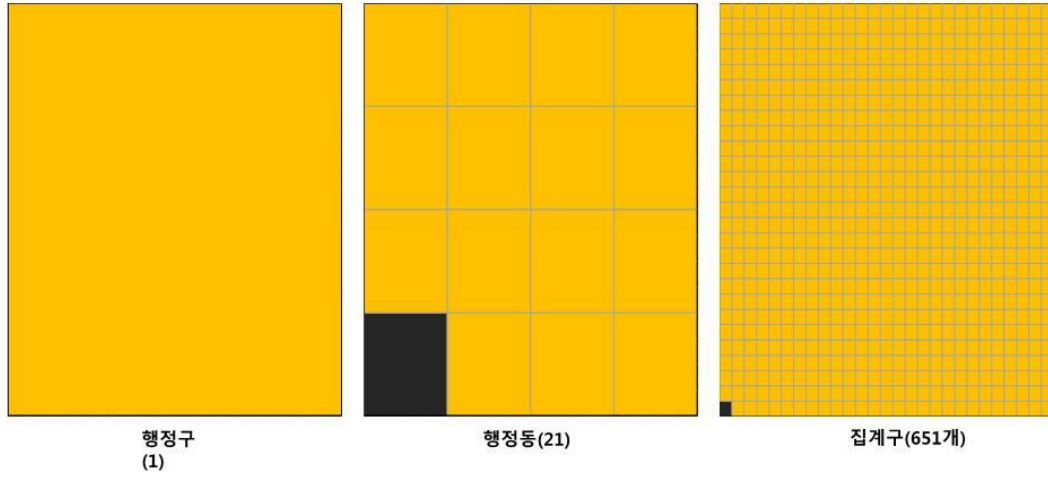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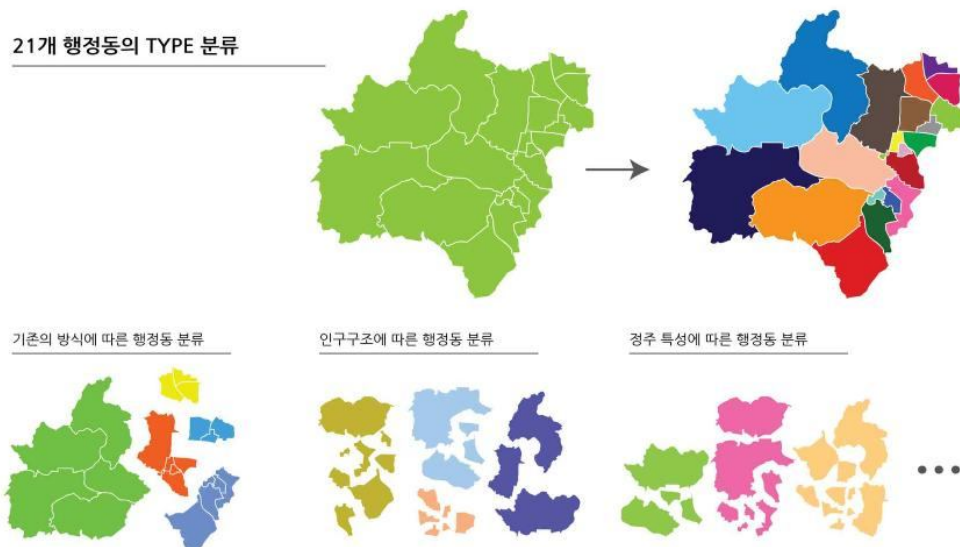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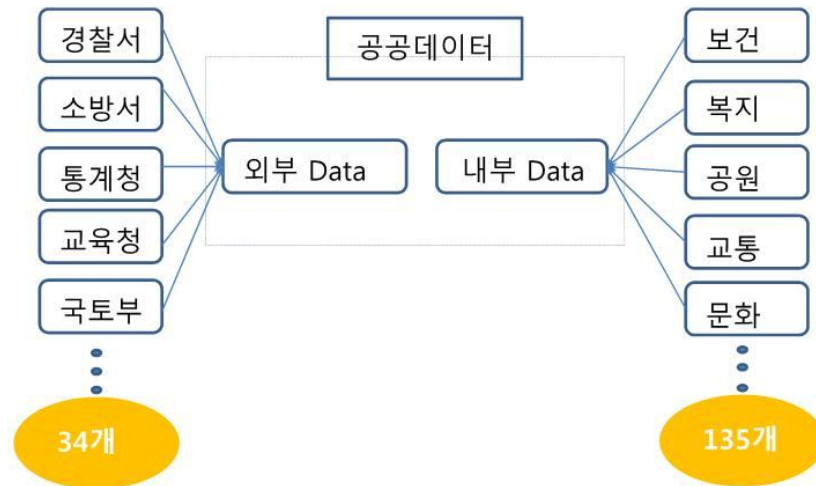




Micro targeting, 그리고 GIS 마을지도

21개 행정동의 TYPE 분류





Micro targeting : 행정동 특성을 유형화

도시환경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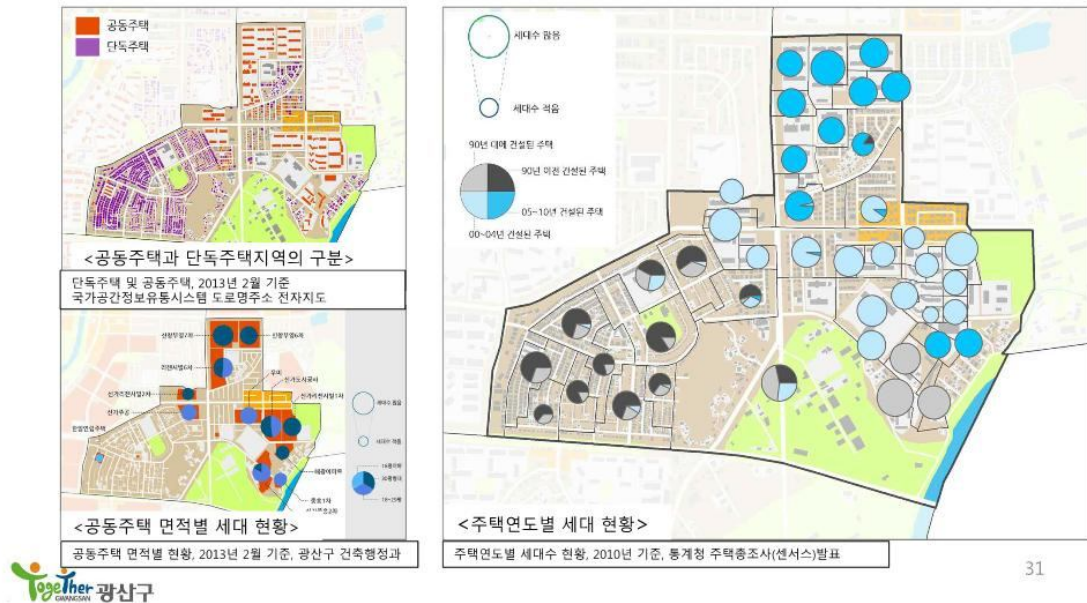


주민복지

지역별 사람들의 특성에 근거하여 비교하기 위한 지표



Micro targeting : 행정동 특성을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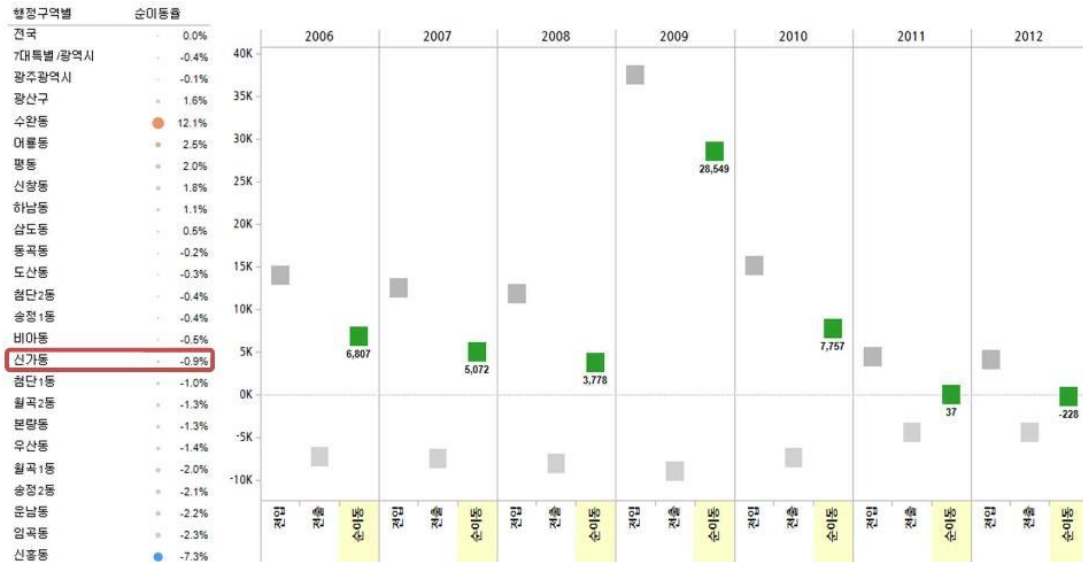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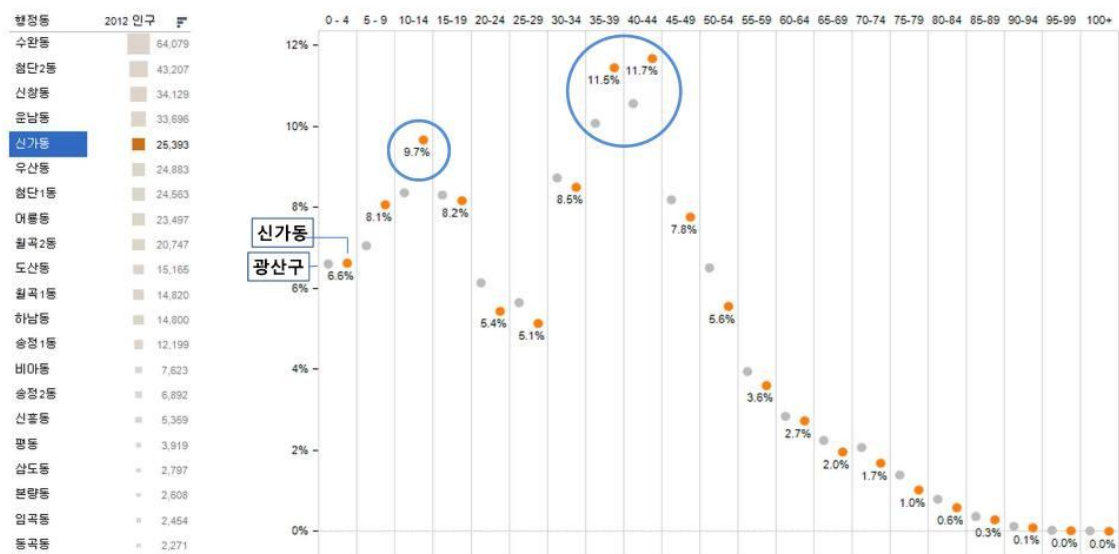
행정구역별	2011년 전출/전입 비교지표						
	2011년 인구	전입	전입율	전출	전출율	순이동	순이동율
전국	50,734,284	8,127,195	16.0%	8,127,195	16.0%	0	0.0%
7개특별/광역시	23,223,748	3,789,689	16.3%	3,905,053	16.8%	-115,364	-0.5%
광주광역시	1,463,464	260,561	17.8%	259,282	17.7%	1,279	0.1%
광산구	375,509	71,316	19.0%	62,442	16.6%	8,874	2.4%
수원동	55,339	15,503	28.0%	7,142	12.9%	8,361	15.1%
하남동	14,384	3,402	23.7%	2,985	20.8%	417	2.9%
어룡동	22,667	5,073	22.4%	3,413	15.1%	1,660	7.3%
비아동	7,564	1,516	20.0%	1,592	21.0%	-76	-1.0%
월곡1동	15,051	2,938	19.5%	3,140	20.9%	-202	-1.3%
신흥동	5,718	1,111	19.4%	968	16.9%	143	2.5%
월곡2동	20,835	3,948	18.9%	4,154	19.9%	-206	-1.0%
신창동	33,176	6,173	18.6%	5,538	16.7%	635	1.9%
우산동	25,143	4,609	18.3%	4,862	19.3%	-253	-1.0%
도산동	15,059	2,632	17.5%	2,724	18.1%	-92	-0.6%
신가동	25,369	4,423	17.4%	4,386	17.3%	37	0.1%
송정2동	7,041	1,208	17.2%	1,310	18.6%	-102	-1.4%
첨단2동	43,031	7,256	16.9%	7,121	16.5%	135	0.3%
송정1동	12,153	2,014	16.6%	2,240	18.4%	-226	-1.9%
운남동	34,030	4,781	14.0%	5,318	15.6%	-537	-1.6%
임곡동	2,532	345	13.6%	380	15.0%	-35	-1.4%
평동	3,877	507	13.1%	632	16.3%	-125	-3.2%
삼도동	2,829	357	12.6%	415	14.7%	-58	-2.1%
첨단1동	24,734	3,016	12.2%	3,486	14.1%	-470	-1.9%
동곡동	2,302	241	10.5%	327	14.2%	-86	-3.7%
본량동	2,675	263	9.8%	309	11.6%	-46	-1.7%

Micro targeting : 행정동 특성을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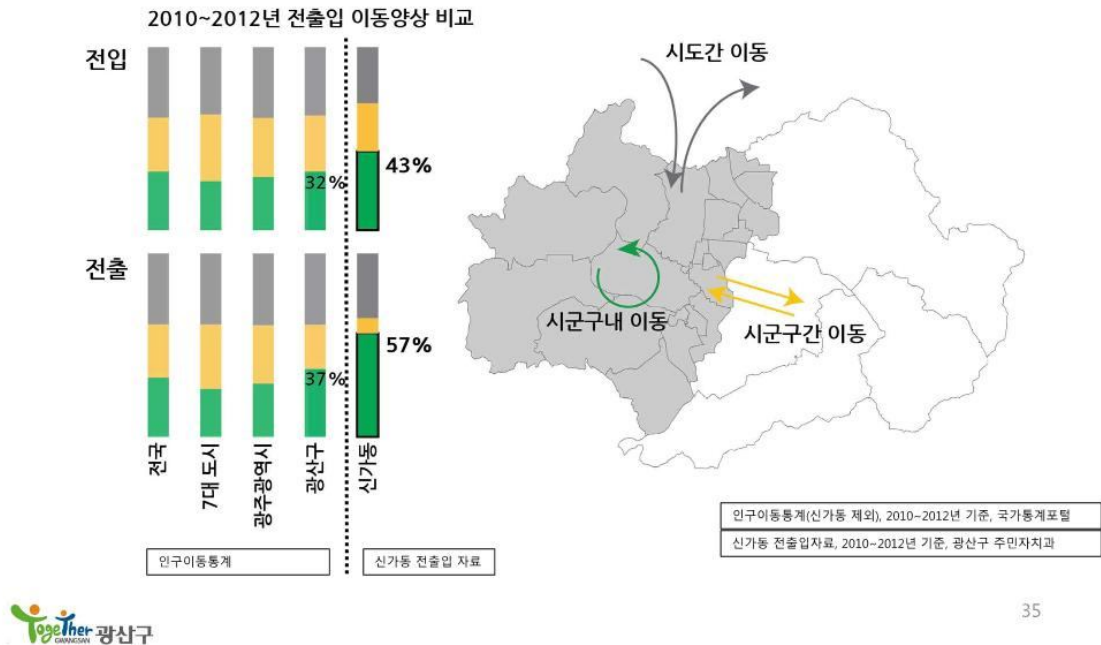


Micro targeting : 행정동 특성을 유형화

- 신가동은 2012년 12월말 기준 2만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동 중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
- 광산구 평균과 비교하여 10대초반, 30대후반~40대초반 인구의 비율이 높고, 45세 이상 비율은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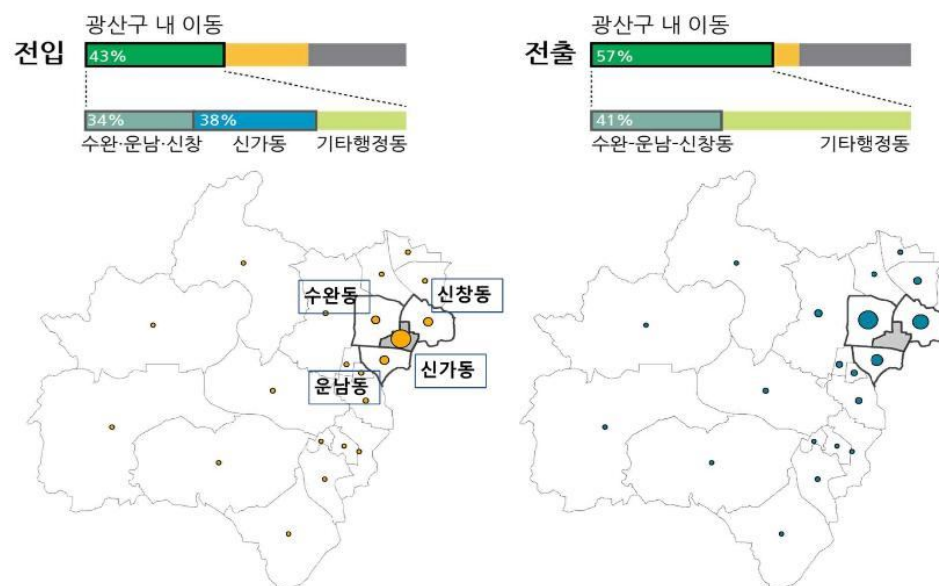


Micro targeting : 행정동 특성을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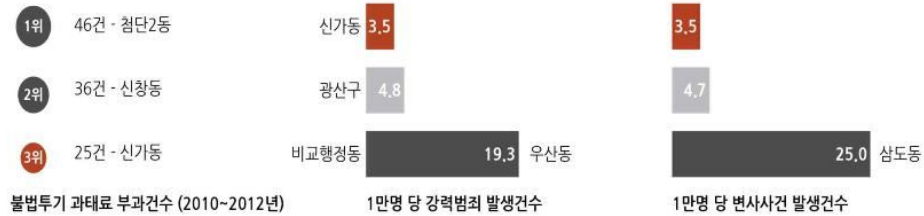
35

Micro targeting : 행정동 특성을 유형화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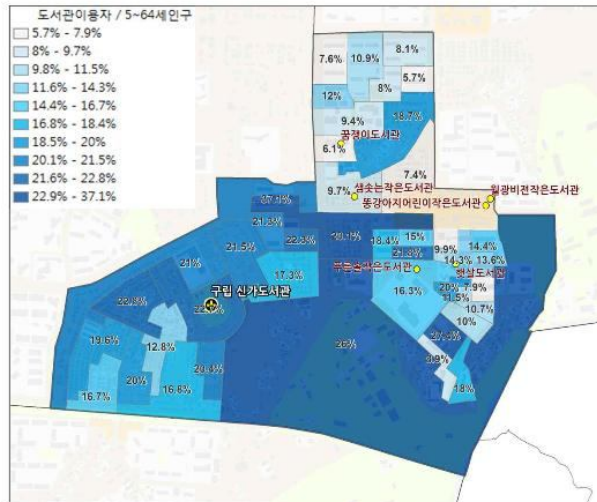
Micro targeting : 행정동 특성을 유형화



Micro targeting : 행정동 특성을 유형화



Micro targeting : 행정동 특성을 유형화



집계구별 인구, 2010년 기준, 통계청 센서스

공공도서관이용현황, 2011년 기준, 광산구 교육도서관과

공공도서관(신가·송정·첨단·운남) 이용율(5~64세)

신가동 15%

광산구 10%

비교: 첨단1동 28%

작은도서관 1개소당 청소년(5~19세) 수

1,096명

신가동

1,218명

광산구

7,082명

비교: 첨단1동

Micro targeting : 행정동 특성을 유형화

1위 46건 - 첨단2동

2위 36건 - 신창동

3위 25건 - 신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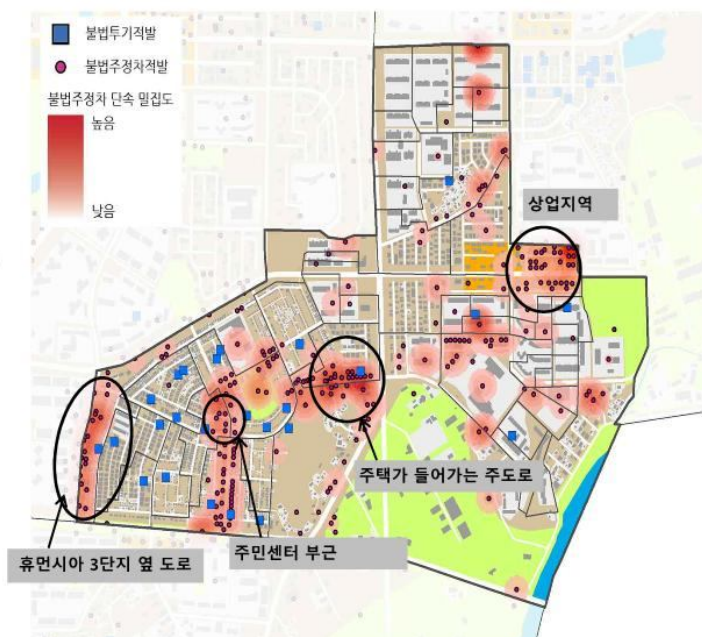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건수 (2010~2012년)

1위 16,236건 - 수완동

2위 15,683건 - 첨단2동

3위 9,851건 - 신가동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2011년)



목민관클럽 임원 및 조직 구성

직책	성 명 및 지역	비고
공동대표 (4인)	나소열 군수 (3선, 충남 서천)	운영위원장
	노현송 구청장 (2선, 서울 강서)	
	박영순 시장 (3선, 경기 구리)	
	박우섭 구청장 (2선, 인천 남구)	
감사(1인)	김선교 군수 (2선, 경기 양평)	
고문(2인)	고재득 구청장 (4선, 서울 성동)	
	박석무 이사장 (다산연구소)	
운영 위원 (11인)	김만수 시장 (초선, 경기 부천)	
	배진교 구청장 (초선, 인천 남동구)	
	염태영 시장 (초선, 경기 수원)	
	이재명 시장 (초선, 경기 성남)	
	이해식 구청장 (2선, 서울 강동)	
	임정엽 군수 (2선, 전북 완주)	
	정종득 시장 (2선, 전남 목포)	
	정현태 군수 (2선, 경남 남해)	
	조충훈 시장 (초선, 전남 순천)	
	최 성 시장 (초선, 경기 고양)	
	홍미영 구청장(초선, 인천 부평)	

목민관클럽 회원 주소록

지역	자치단체장	성명	단체장 메일주소
인천	연수구청장	고남석 (高南碩)	namseokgo@hanmail.net
서울	성동구청장	고재득 (高在得)	goh1@sd.go.kr
경기	오산시장	곽상욱 (郭相旭)	kswf219@hanmail.net
경기	부천시장	김만수 (金晩洙)	kms7383@gmail.com
전북	정읍시장	김생기 (金生基)	2626ksk@naver.com
경기	양평군수	김선교 (金善敎)	kimsg@yp21.net
서울	노원구청장	김성환 (金星煥)	no.1@nowon.go.kr
서울	성북구청장	김영배 (金永培)	ybkim86@sb.go.kr
서울	종로구청장	김영종 (金永稷)	young6556@jongno.go.kr
서울	은평구청장	김우영 (金宇榮)	wooyoung@ep.go.kr
경기	시흥시장	김윤식 (金允植)	yskim5977@korea.kr
전남	완도군수	김종식 (金鍾植)	kjs501020@korea.kr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金鍾勳)	dongulove@korea.kr
경기	안산시장	김철민 (金哲玟)	mayor@iansan.net
전남	여수시장	김충석 (金忠錫)	cskim2012@korea.kr
충남	서천군수	나소열 (羅紹烈)	naso10@korea.kr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盧顯松)	hsro22@hanmail.net
서울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文錫珍)	cpamsj@yahoo.co.kr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 (閔炯培)	hbmin@chol.com
서울	강북구청장	박겸수 (朴謙洙)	newgangbuk@gangbuk.go.kr
전남	고흥군수	박병종 (朴炳淙)	snine@korea.kr
경기	구리시장	박영순 (朴榮舜)	ysparkguri@korea.kr
전남	신안군수	박우량 (朴禹良)	wrpark@empal.com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朴祐燮)	ceonamgu@daum.net
서울	서울시장	박원순 (朴元淳)	wonsoon@seoul.go.kr
인천	남동구청장	배진교 (裴晉敎)	baejg@korea.kr
충남	아산시장	복기왕 (卜箕旺)	vsbok@korea.kr
전남	구례군수	서기동 (徐沂東)	gds06531@korea.kr

광주	북구청장	송광운 (宋光運)	kwangwoon53@hanmail.net
전북	진안군수	송영선 (宋永先)	sys0514@korea.kr
전남	함평군수	안병호 (安柄鎬)	tomj@korea.kr
경기	수원시장	염태영 (廉泰英)	suwonmayor@naver.com
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柳德烈)	ddmydy@ddm.go.kr
경기	김포시장	유영록 (劉永錄)	greengimpo@korea.kr
서울	관악구청장	유종필 (柳鍾弼)	jpyoo@paran.com
울산	북구청장	윤종오 (尹鍾五)	jongo21@korea.kr
전북	고창군수	이강수 (李康洙)	leekms@hanmail.net
서울	도봉구청장	이동진 (李東秦)	djl0908@naver.com
서울	구로구청장	이성 (李星)	leesung@guro.go.kr
경기	성남시장	이재명 (李在明)	ljm631000@nate.com
전북	익산시장	이한수 (李漢洙)	hanviet04@naver.com
서울	강동구청장	이해식 (李海植)	leehsik@gangdong.go.kr
전북	완주군수	임정엽 (林呈燁)	rcy144@korea.kr
충북	영동군수	정구복 (鄭求福)	loveyd06@korea.kr
충북	보은군수	정상혁 (鄭相赫)	jungsh@korea.kr
전남	목포시장	정종득 (丁鍾得)	cdchung1@korea.kr
경남	남해군수	정현태 (鄭炫台)	namhaenet@hanmail.net
전남	순천시장	조충훈 (趙忠勳)	cho12345@korea.kr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 (趙澤相)	tacksang1124@korea.kr
서울	금천구청장	차성수 (車聖秀)	sscha@paran.com
경기	화성시장	채인석 (蔡寅錫)	ilovehs@hscity.net
경기	안양시장	최대호 (崔大鎬)	dh2010@korea.kr
강원	강원도지사	최문순 (崔文洵)	moonsoonc@hanmail.net
경기	고양시장	최성 (崔星)	choisung@korea.kr, choisung21@hanmail.net
인천	부평구청장	홍미영 (洪美英)	myhong0910@korea.kr
대전	유성구청장	허태정 (許泰鎰)	vis0605@korea.kr
전남	前강진군수 (18대 국회의원) (명예회원)	황주홍 (黃柱洪)	pv21c@chol.com

※ 회원 주소록은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

목민관클럽 창립취지문 및 규약

제정:2010.09.07

개정:2011.11.30

목민관 창립취지문

1991년의 지방자치 부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단체장 5기를 맞아 우리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지역이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기초하여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와 거버넌스(Governance),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행정 중심의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으로는 지역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개발과 대안 설계를 맡아줄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싱크탱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를 준비하기 위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목민관 클럽’(가칭)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목민관 클럽’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사구시의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각 지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실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의 협의체입니다.

‘목민관 클럽’은 정기적인 포럼(Forum)을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공동 개발하며 지역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의제(Local Agenda)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지역별 정책과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목민관 클럽’은 또 정당과 정파의 벽을 뛰어넘어 각 정당 또는 무소속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초정파적인 모임이며, 정당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풀뿌리 생활자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 리더와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나서서 지방자치의 선진모델을 만들고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2010년9월7일

희망제작소 & 목민관클럽 회원 일동

목민관클럽 규약

제1조 목적

목민관클럽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으로서,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여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고, 연찬을 통해 지혜를 교류하며 상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회원

목민관클럽은 상기 취지문과 위의 제1조 목적에 동의하는 현직 시장·군수·구청장 및 광역단체장을 정회원으로 하며, 전직단체장 중 희망자를 명예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2011.11.30 개정)

제3조 사업

목민관클럽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 개최
2.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국내외 연수
3. 글로벌한 교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4.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무원 등 공공리더 교육
5. 국내외 자치단체 간 정보 교류와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6. 모임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료집, 단행본 출판
7. 기타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임원

목민관클럽은 모임을 대표하는 공동대표 5인과 감사 1~2인을 둔다.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공동대표는 목민관클럽을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2. 감사는 목민관클럽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운영하는지, 회비로 충당하는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목민관클럽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 15~20인 규모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나머지 운영위원은 공동대표단이 정당과 지역을 안배해 선임한다. 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단 중에 1인을 호선하여 겸임한다.

제6조 사무국

목민관클럽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 두며, 사무국장은 희망제작소 연구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들의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목민관클럽은 모임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회의를 운영한다. 모든 회의는 회원(또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또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개최(9월)하며, 규약의 제·개정과 임원 선출 등 모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기능한다.
2. 임시총회 : 모임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대표 또는 회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 주요 사업계획 등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조 재무

목민관클럽은 제3조 목적사업을 위한 기획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월정 회비를 각출한다. 회비의 규모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기획 및 사무국 운영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참여 회원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고문과 협력기관

목민관클럽은 모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고문과 협력기관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과 협력기관은 은 본 모임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와 기관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부칙

본 규약은 목민관클럽이 창립한 2010년 9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이력:

- ① 제2조 (회원) 광역단체장의 경우 당초 ‘명예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정회원’으로 자격을 변경함 (2011.11.30 개정)

[메 모]

